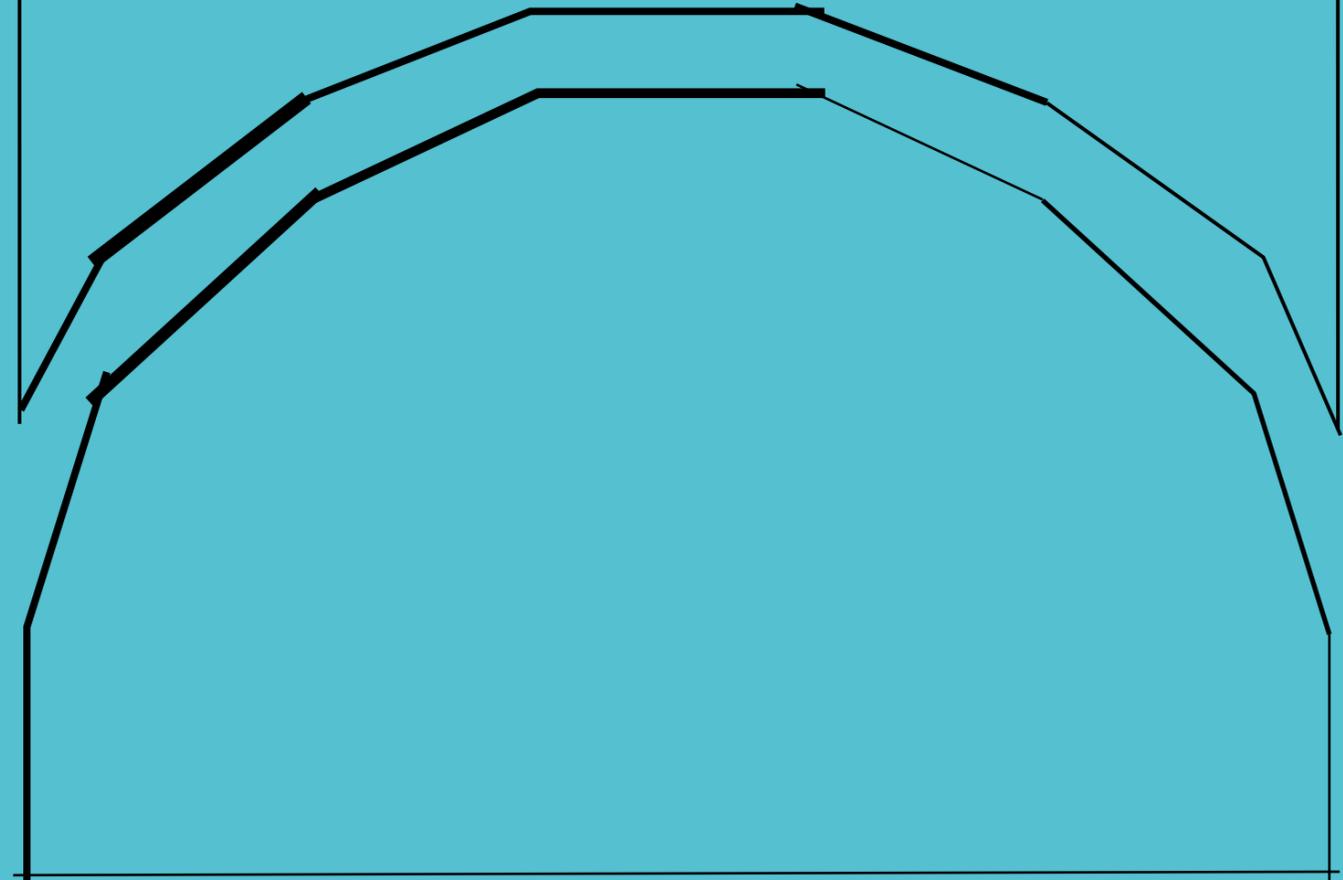




공공예술 프로젝트

드리퍼
노티스

생태극장
오케스트라



도림천 소개	7
도림천 생태극장 지도	10
연구보고서	12
생태도감	16
도림천나들이 part.1	20
인포그래픽	28
도림천 다님길 프로젝트	34
도림천 나들이 part.2	52
도림천 빛갤러리	104
생태극장 커뮤니티라운지	112
도림도란	116
심포지움	120
시민만족도조사	122
아이덴티티 디자인 기록	126
만든이들	135

도림천 소개

영등포는 대방천, 도림천, 안양천, 한강, 샛강이 둘러싼 수변도시이고, 어느 곳이든 물줄기가 지나가는 지역이다. 도시의 이름에 들어간 물가를 뜻하는 포(浦) 역시 아주 오랜 옛날부터 흐르던 강줄기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물과 풀이 좋아 말과 양을 키우던 목장이 있었고, 황석영의 소설 '모랫말 아이들'에서 나타나듯 빨래를 하며, 아이를 키우던 동네의 개여울이나 그 시절 커뮤니티의 거점으로 마을공동체의 중심이 되었던 도림천은 도로와 아파트, 철로로 가로막힌 육로 아래로 갇힌 모습으로 남아있다.

시작

영등포문화재단에서는 도림천을 포함한 안양천, 한강, 샛강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시민협력모임으로 수변탐사대와 수변실험단을 운영하며, 수변을 기반으로 하여 구민과 예술가들의 자율적 문화활동을 만들어가고 있다. 앞선 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소실되어버린 도림천변의 자연성, 지역성, 예술성을 회복하며 도시민들을 초대하여 연결하여 차갑고 그늘진 장소에서 따뜻하고 연결된 장소로의 변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서의 초대를 위해 2021년 4월 첫 기획을 시작하였다.

시작과 함께 도림천의 풀과 꽃, 나무, 곤충, 새 등 생명의 이름을 알고, 수변을 따라 길게 늘어선 다리와 기둥, 의자 등 사물의 이름을 아는 것, 그리고 문래동의 예술과 대림동의 주민들이 서로의 이름을 알게 되고 소통하는 장소가 되길 바라는 관점으로 사업의 방향성이 맞춰졌다. 여기에 방치된 구조물에 대한 예술적 개입과 프레이밍, 그리고 시민들의 이야기로 채워지는 도림천으로의 변화를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유형

본 사업은 크게 5가지의 방향으로 세분화할 수 있는데, (1)연구, 조사 등 기초사업, (2)인포그래픽, 수변갤러리 등 장소특정적 설치작업, (3)도림천 빛갤러리(고보조명), 생태극장&커뮤니티라운지 등 친수편의시설로써의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4)아카이빙, (5)워크숍, 심포지움 등 시민참여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과정

시민이 늘 걷는 길에, 그곳이 터전인 식생들이 머무는 곳에 적절한 온도로 예술적 개입을 시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길이었다. 사람의 길을 편하게,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식물과 동물, 생태계에 피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늘 돌다리를 두드리고 또 두드리는 과정의 반복이기도 했다. 특히나 도림천은 상습범람구간으로 매년 장마기간 인명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관계기관의 이야기 또한 놓칠 수 없었다.

본 도록의 각 꼭지에서 사업을 소개하겠지만, 사업 아카이빙 과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고민했던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각 사업들이 앞서 말한 다섯가지 유형의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묶이고 또 연결되고 있는가 이다. 다른 하나는 결과보다 과정의 우여곡절이 많은 공공예술 사업의 여정을 잘 보여줄 수 있는가이다. 2022년 12월을 끝으로 공공예술 사업 기간 동안 행정적인 절차에 수없이 부딪히기도 하고, 폭우에 좌절하기도 했지만 사업의 성과를 이루기보다 공공예술의 초석을 도림천에 하나씩 쌓는 과정이었길 바란다.

영등포문화재단



도림천 생태극장 스케치인터뷰 영상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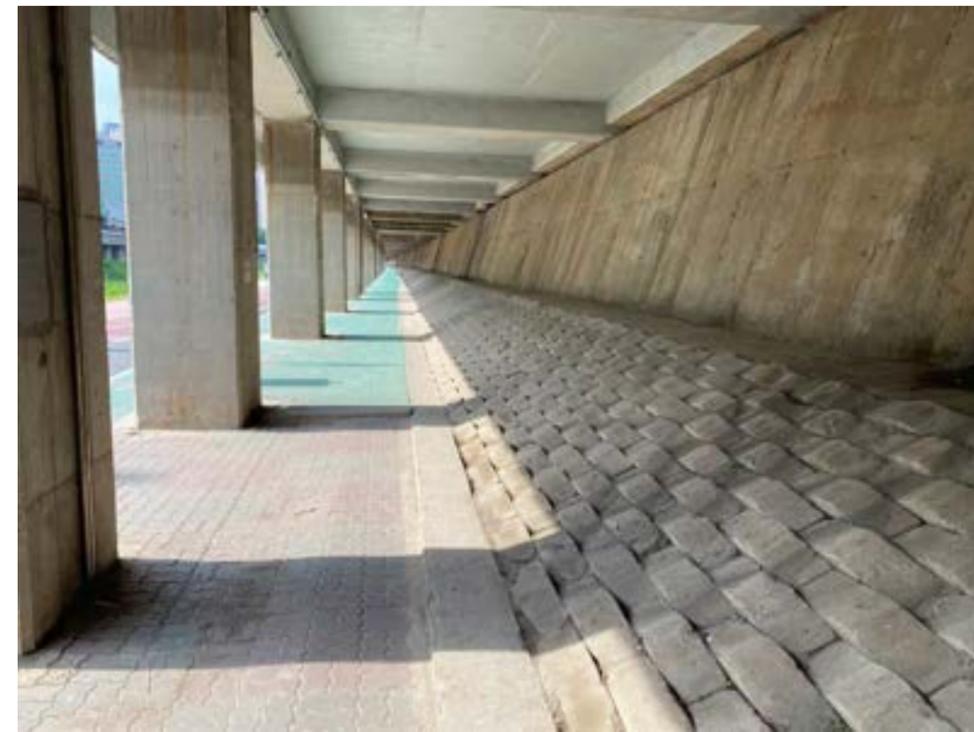
[1]



[2]



[3]



[4]



[5]

- [1] 2021년 8월 도림천 전경
- [2] 2021년 12월 도림천 전경
- [3] 2021년 7월 거리공원 오거리 교량 하부
- [4],[5] 2021년 8월 산책로 및 하천



도림천 생태, 문화적 조사연구는 도림천을 둘러싼 사람의 이야기, 역사성, 장소성의 발굴을 위해 도림천 생태극장의 첫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 전문가 리서치를 포함하여 운영되었으며, 현장의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 온오프라인 조사를 동시에 운영하였다.

이후의 프로젝트에서도 유의미한 조사연구 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이미지, 문헌 등 다양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생태극장과 커뮤니티라운지, 도림천 빛갤러리 등 세부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전문가 리서치를 통해 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및 안전요소들을 검토하였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역사와 생태를 결합한 조사와 연구를 시행하였다.

해당 조사는 영등포문화재단 홈페이지, 도림천 생태극장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연구보고서

프로젝트 추진기간:
2021/8-12

도림천 생태,
문화적 조사 연구 2021

주관 연구기관: 커텍터스랩

I. 서장

1. 조사배경 및 조사목적
2.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II. 도림천 및 권역의 현황과 특징

1. 도림천 일반현황
2. 사업대상지 일반현황
3. 도림천 인근 지역 현황
4. 도림천 및 권역의 역사
5. 도림천 이용현황

III. 도림천의 생태 이야기

1. 도림천의 식물
2. 도림천의 동물
3. 도림천의 동식물과 시민의 기억
4. 생태 복원을 위한 생물
5. 도림천 생태 복원의 의미

IV. 도림천 생태극장에 대한 시민 의견

1. 도림천에 대한 인식
2. 도림천 공공예술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
3. 도림천의 과거와 미래

V. 공공예술 '도림천 생태극장'을 위한 제언

1. 공공예술 '도림천 생태극장'의 방향성
2. 주제별 제언

참고문헌

부록

○ 한편 사업대상지역 내 진출입로는 대림역 5번 출구 인근, 거리공원오거리 교량 인근, 대림동 646-1번지 내 교량 인근까지 세 곳에 설치되어 있음. 진출입로는 계단형 또는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휠체어 등 접근은 어려움. 구간 내 징검다리는 3개로 파악되나 2021년 9월 현재 추가 설치 또는 공사 중임. 시민 휴게 공간으로는 대림역 인근 도림천 하부에 유일하게 벤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함. 사업대상지 내 기타 운동시설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은 없음.



[그림 2] 사업대상지 구역도

2) 도림천 기초현황

(1) 개요

- 도림천은 관악산(삼성산)에서 발원하여 신정교 부근에서 한강의 제1지류인 안양천으로 합류하며 지방2급하천으로 분류·관리 되고 있음.
- 유역면적은 41.93km², 유로연장은 14.20km(영등포 내 유로연장 4.04km)인 안양천의 제1지류이자 한강의 제2지류임. 지방2급하천 규모로는 관악구, 동작구, 구로구, 영등포구까지 총 4개 자치구에 걸쳐 흐르는 점이 독특한 하천임. 영등포구 내에서는 상류로부터 대림2동, 대림3동, 도림동, 문래동까지 총 4개 동을 거쳐 안양천과 합류 함.
- 도림천은 관악구 신림동 지역을 통과하여 보라매 공원 부근 우안으로 봉천천(신림동에서 발원하여 신림동 통과, 유역면적 13.54km², 유로연장 14.20km)과 합류하며, 봉천천과 합류한 도림천은 남서쪽으로 굽어져 흐르다가 구로디지털단지 인근에서 다시 북서쪽으로 꺾어져

신도림교 부근에서 대방천(상도동에서 발원하여 신대방동, 대림동 통과, 유역면적 8.32km², 유로연장 6.71km)과 합류함. 대방천과 합류한 도림천은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북서쪽으로 흐르다가 분류인 안양천 우안으로 합류함.



[그림 2] 사업대상지 구역도

흰뺨검둥오리와 청둥오리

- 도림천을 걷다보면 흰뺨검둥오리와 청둥오리가 물위를 자유롭게 유영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음. 청둥오리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도림천에 사는 생물 중 가장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음. 백로속 조류들이 여름철새였다가 텃새가 되었다면, 흰뺨검둥오리는 원래 겨울철새였는데 텃새가 되고 있음. 청둥오리 역시 겨울 철새였다가 텃새화 되고 있음. 흰뺨검둥오리와 청둥오리 모두 물가에 둥지를 틀고 사는데, 청둥오리는 해가 질 무렵에 농경지 등에서 먹이활동을 함.

- 흰뺨검둥오리는 암갈색을 띠는데 몸에 갈색 비늘무늬가 있으며, 부리는 검은색인데 끝은 노란색임. 청둥오리의 암컷은 흰뺨검둥오리와 비슷하지만, 몸의 무늬색이 더 진한 편이고 주황색 부리에 검은 반점이 있음. 오리과 새의 수컷은 번식기에 대부분 화려한 깃으로 장식하는데 흰뺨검둥오리는 암컷과 수컷의 외형이 거의 비슷하여 특징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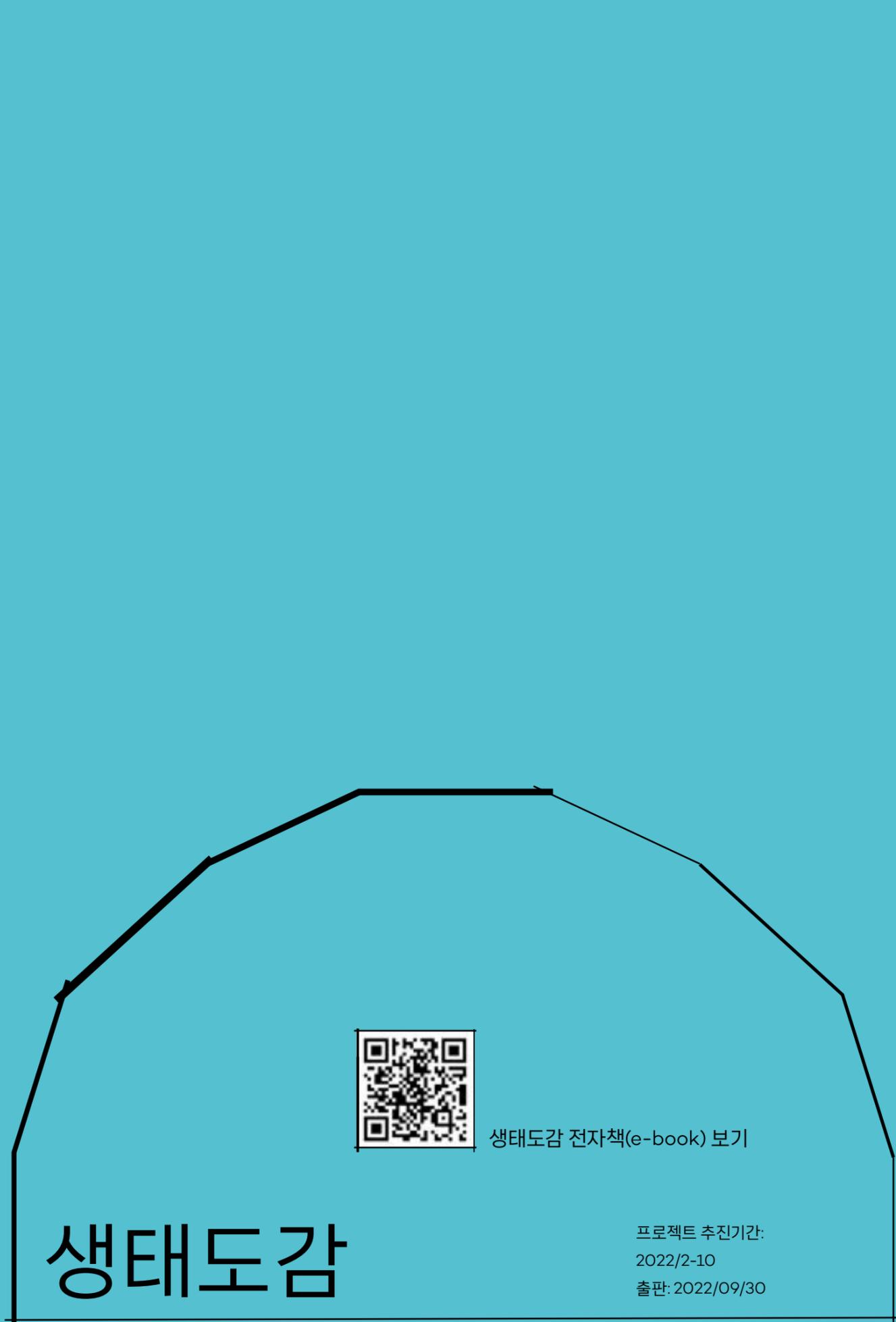
- 청둥오리의 수컷은 평소에는 암컷과 색이 유사하지만 번식기에는 녹색의 번식 깃이 돋아나 머리는 광택이 나는 청록색, 가슴은 밤색, 등 부분은 전반적으로 회색을 띄게 됨. 번식기가 끝나면 다시 원래의 깃털로 돌아감.



[그림 47] 흰뺨검둥오리



[그림 48] 청둥오리



영등포문화재단은 21년도 사업의 첫 걸음으로 도림천의 여러 지역성을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 생태, 역사, 이웃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연구보고서를 제작하였다. 우리가 기억하는 지금의 도림천이 되기 전의 역사, 식생, 시민들이 기억하는 도림천, 바라는 점 등을 담았다. 그리고 만들어진 이야기를 시민들이 보다 쉽게 만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22년 2월 '생태도감'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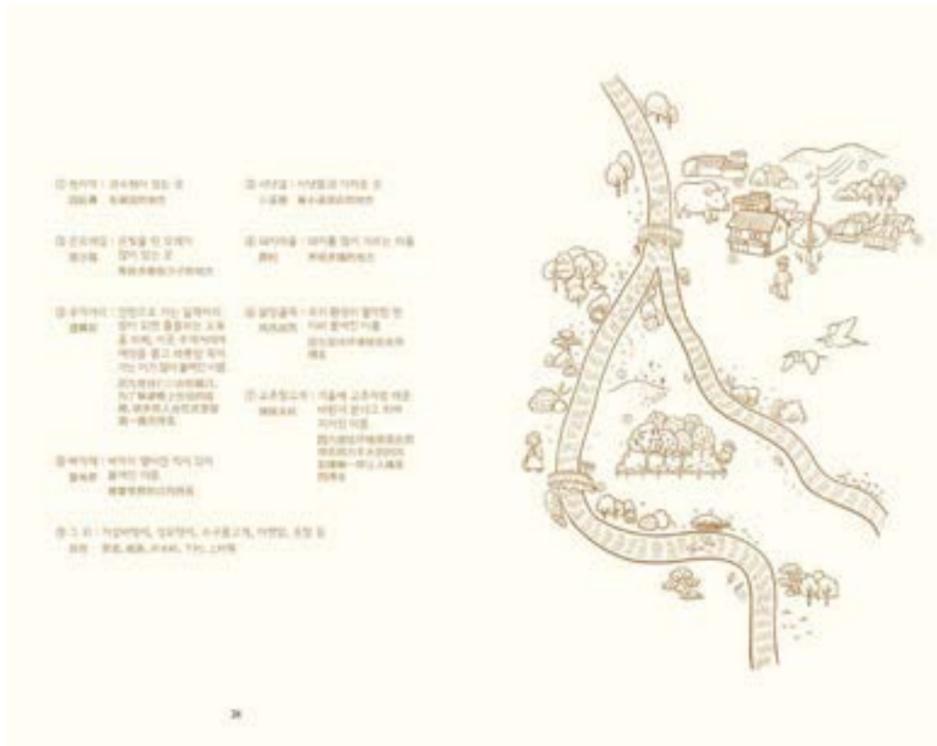
우리가 애정하는 도림천은 지역적, 생태적으로 독특한 면을 지니고 있다. 대림역 가까이의 도림천은 하천 양쪽으로 영등포구와 구로구가 있고, 도림천 전체는 관악구, 동작구 총 4개의 구가 걸쳐있으며 안양천으로도 이어져 있다. 비가 자주 오는 여름에는 물이 넘치고 지방하천 중에서도 유속이 무척 빠르며, 겨울에는 건천이다. 그만큼 도림천의 사계절은 다양한 색을 지닌다.

도림천은 관외에서 방문하는 유동 인구보다 산책, 자전거 라이딩, 색소폰 연주 등 매일 같이 방문하는 영등포구 시민이 더 자주 이용하는 하천이다. 대림역 주변은 중국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며 터전을 일구며 살아가고 있으며, 주변의 학교와 상권 모두 다언어를 쓰는 주민들이 거주하기에 다양한 문화를 내포한 지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으로 도림천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서로의 이웃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모두가 쉽게 읽을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는 도림천의 도감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어느 날 하갯길에 도림천을 지나던 어린이가 하천에 날아드는 새를 보고 도감을 펼쳐 찾아보거나, 학부모가 자녀와 함께 도림천에 방문했을 때 도감을 보고 꽃이 언제 피고 지는지 직접 설명해주는 상황을 상상해보기도 했다.

도림천과 대림동 주민과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진정한 도감의 쓰임새가 아닐까. 시민이 머물고 싶은 도림천, 궁금한 도림천, 예술과 식생이 어우러지는 도림천으로 환기되는 시작점에 공공예술 사업과 도감이 제 역할을 하길 바란다.

글	이연우
그림	백조은
감수	서울시 중부농원복지사업소 공원여과과장 김지석(식물) 국립생물자원관 김태우(곤충) 한국민물고기보존협회장 이완옥(어류)
자문	이한솔, 최영식
출판기획·디자인	해방해방 @haebanghaebang
교정교열	여귀숙
번역	문민
발행기획	영등포문화재단



도림천 나들이는 설치그룹마감뉴스와 21년 11월
진행한 전시 워크숍으로 16명의 작가가 함께 모여
운영되었다. 화이트 큐브에서 벗어나 도림천을
갤러리로 자연과 쓰레기 등을 활용하여 전시하였다.

‘하루’라는 시간을 설정해 작가들의 설치과정,
완성된 작품을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관람하며,
도림천을 촘촘하게 채워갔다. 하천의 둔덕,
기둥, 하천, 콘크리트 바닥 등에 설치된 작품은
시간의 흔적에 따라 소멸되고 변형되며 도림천을
드나드는 시민들과도 자연스럽게 도림천 나들이를
이어간다. 본 프로젝트는 22년 도림천 수변갤러리
기획 프로젝트로 이어졌으며, 작가들의 장소에 대한
이해도와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 더욱 풍성하게
선보이게 되었다.

설치그룹 마감뉴스는 1992년 겨울, 미술대학의
조소과 학생들로 결성된 단체로 ‘하루가 끝나는 시각
그날의 주요뉴스를 되짚는 마감뉴스처럼, 소소한
일상인 동시에 주요한 ‘현재 진행형의 작업을 하자’는
취지로 좀 더 자유롭고 새로운 장소를 찾아다녔다.
매년 1회에 걸쳐 자연환경이 살아있는 다양한
장소를 찾아 상주하며 작업하고 있다.

주변의 재료를 채집하거나 다양한 재료들을
준비하여 설치함으로써 자연에 반응하며 소통하는
컨셉으로 서로 다른 배경의 작가들을 만나고 또
현지의 자연, 지역주민과 소통함으로써 예술적
경험들을 함께 나누어왔다.

참여작가
김순임, 김정도, 김철민, 백진현,
송현호, 안경하, 오수연, 오혜린,
이말용, 이종균, 이종은, 이흥한,
정상수, 최용선, 최지은, 홍지희

영상
이야기

사진
송호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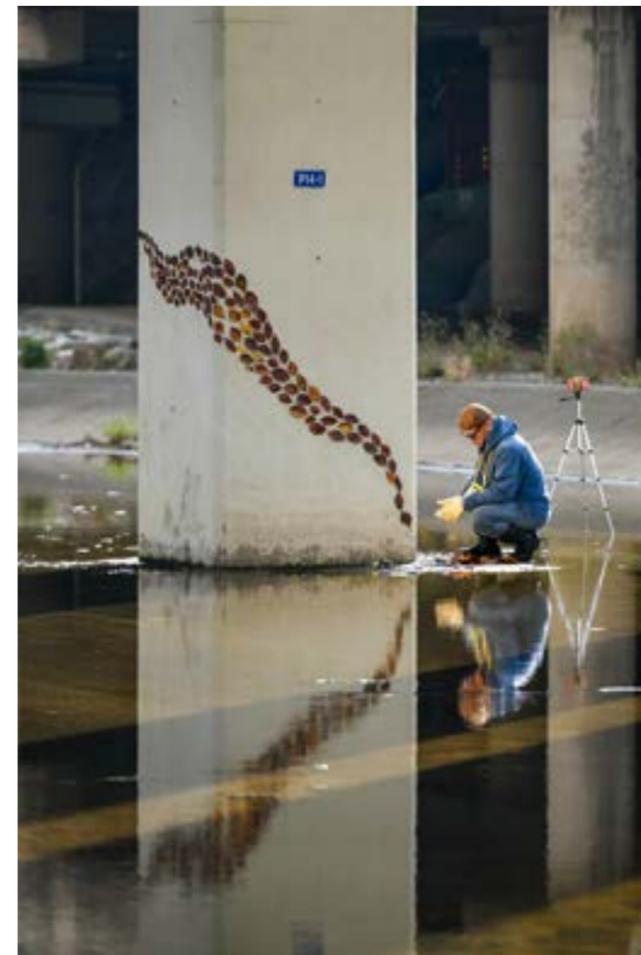
현장 스케치 영상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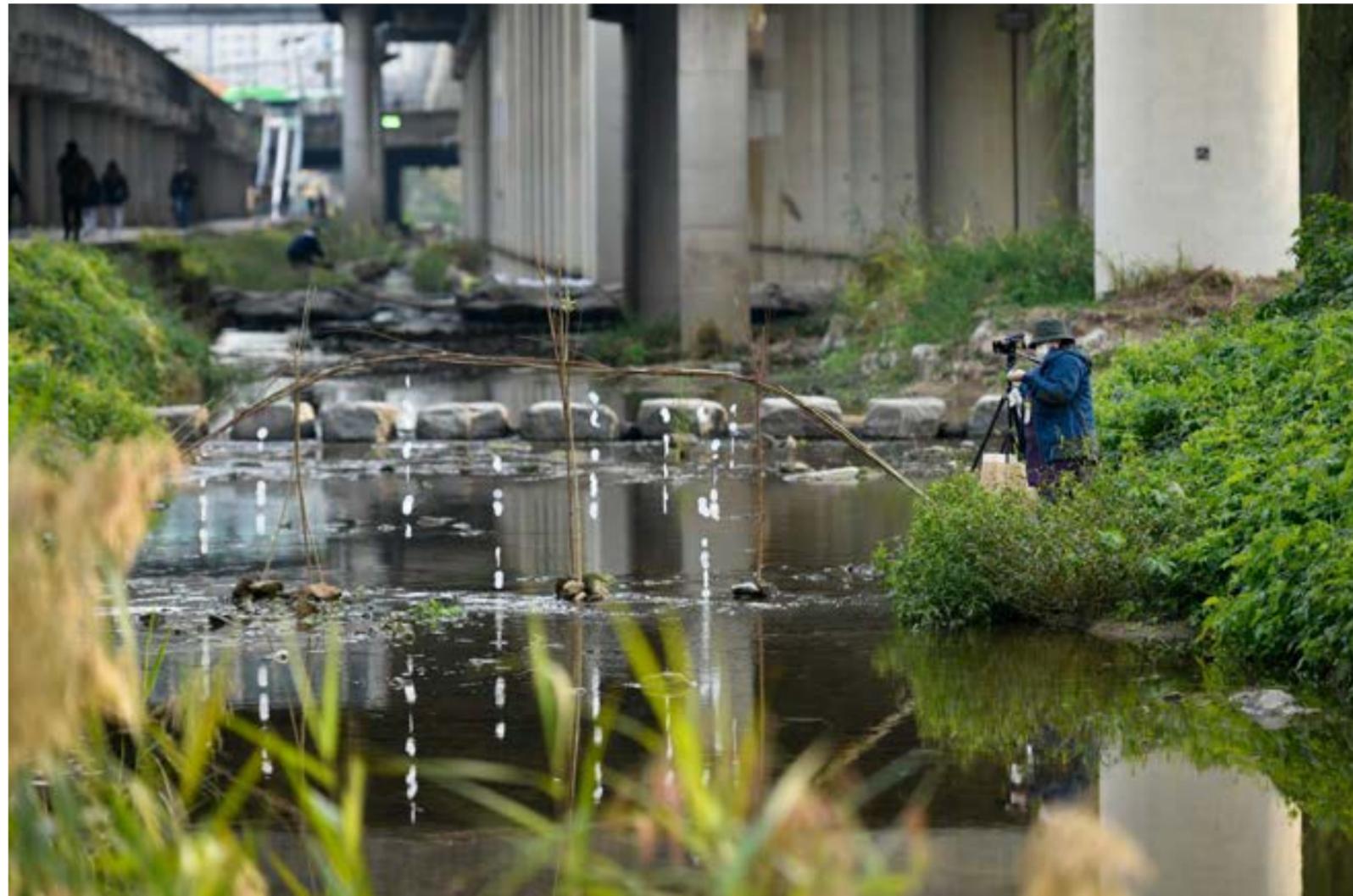


도림천 나들이 Part. 1

전시기간: 2021/11/17









정보와 데이터, 지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뜻을 가진 인포그래픽은 도림천 생태극장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인, 도림천 그 자체의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하고자 기획되었다.

시민들과 함께 터전을 나누고 공생하며 살아가고 있는 새, 나무, 물고기, 그리고 하천의 중심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에 도림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야기를 수집하는 과정으로 문래동의 이록현, 강수경, 김보배 작가들이 함께 작업한 인포그래픽디자인이 완성되었다.

영등포구와 도림천의 주민이자 이용자로서 3명의 작가가 인포그래픽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안내 기능인 정보가 아니다. 이것은 앞으로 함께 바라보아야하는 생태 회복의 중심 '도림천'이라는 관점을 두고, 또다른 도림천 주인공들에 관한 이야기를 캔버스에 펼쳐낸 것이다.

길을 따라 이어지는 물고기, 나무, 새들의 그림과 이야기를 통해 좀 더 시민과 가까워지는 도림천을 꿈꾸며, 물과 생물이 살아숨쉬는 도림천이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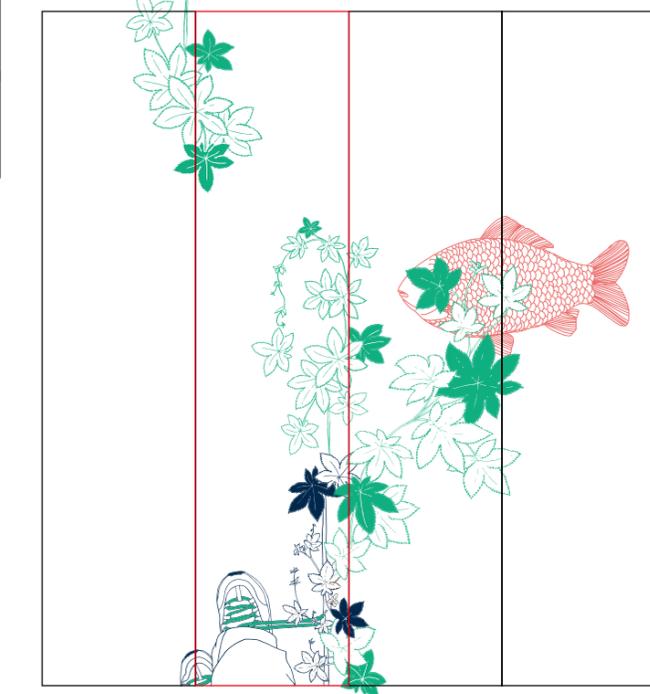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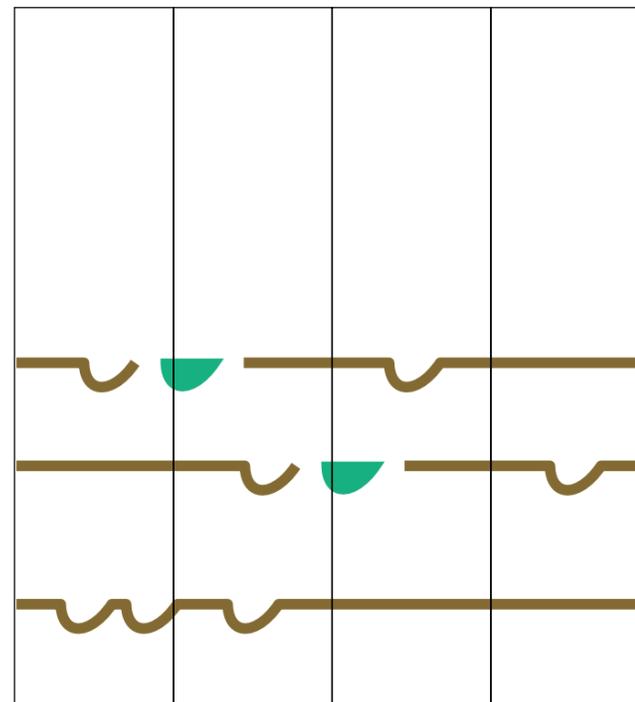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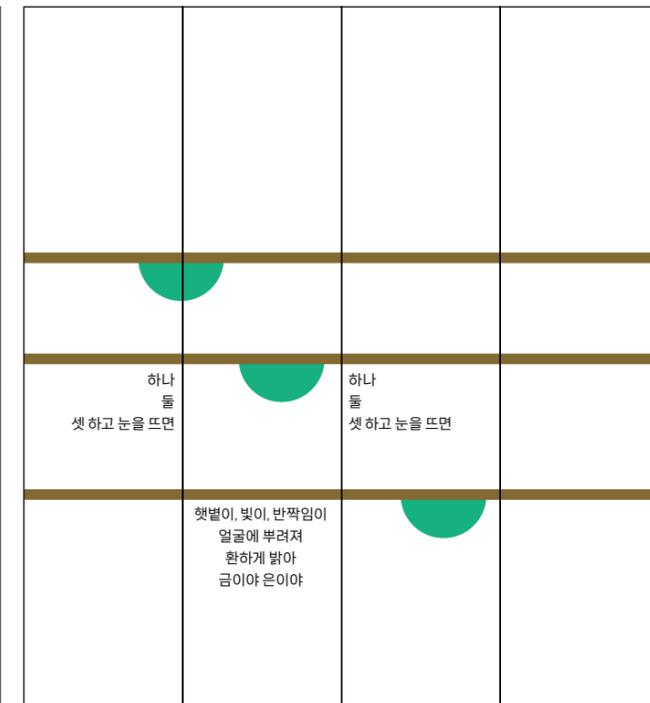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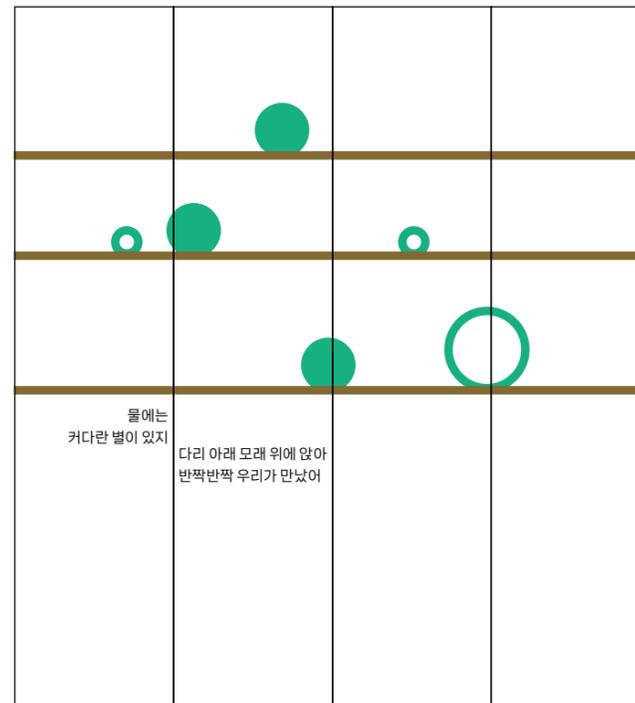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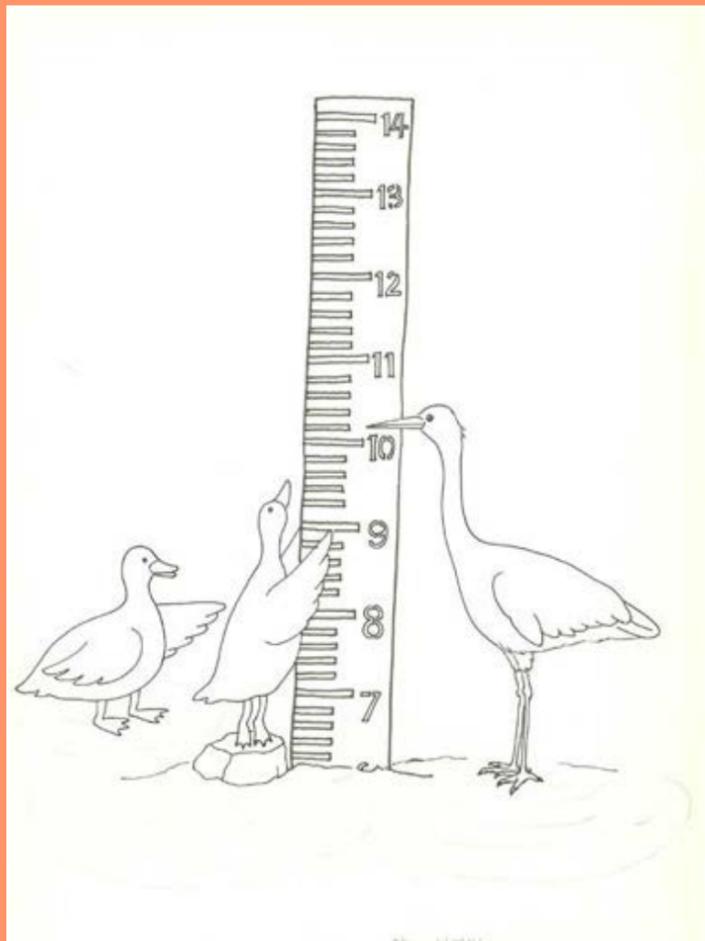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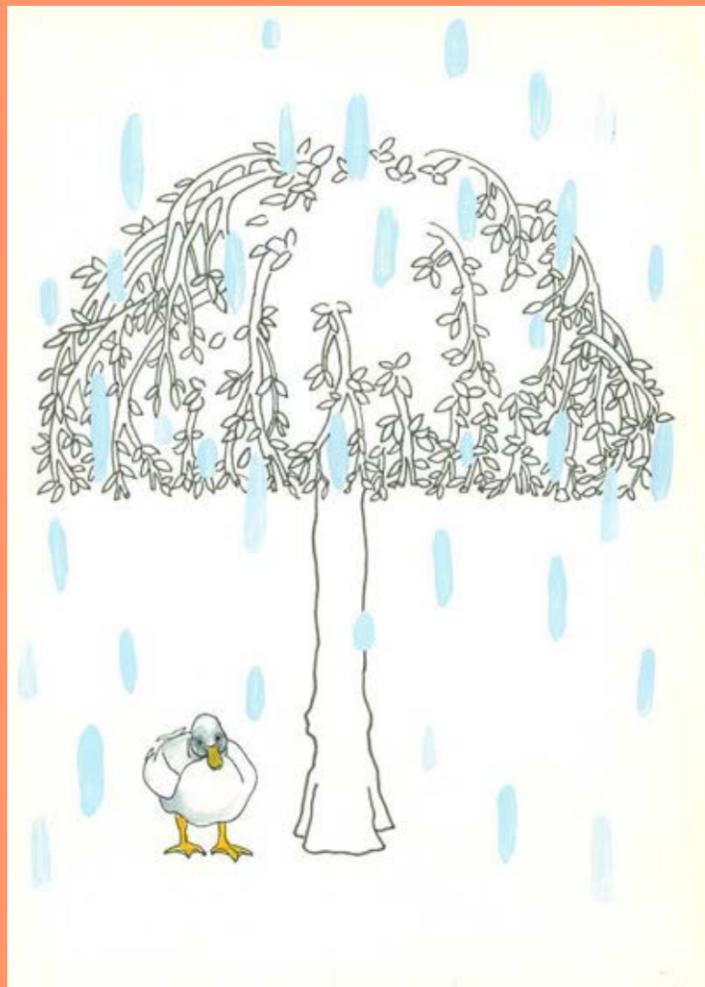
참여작가
강수경, 김보배, 이록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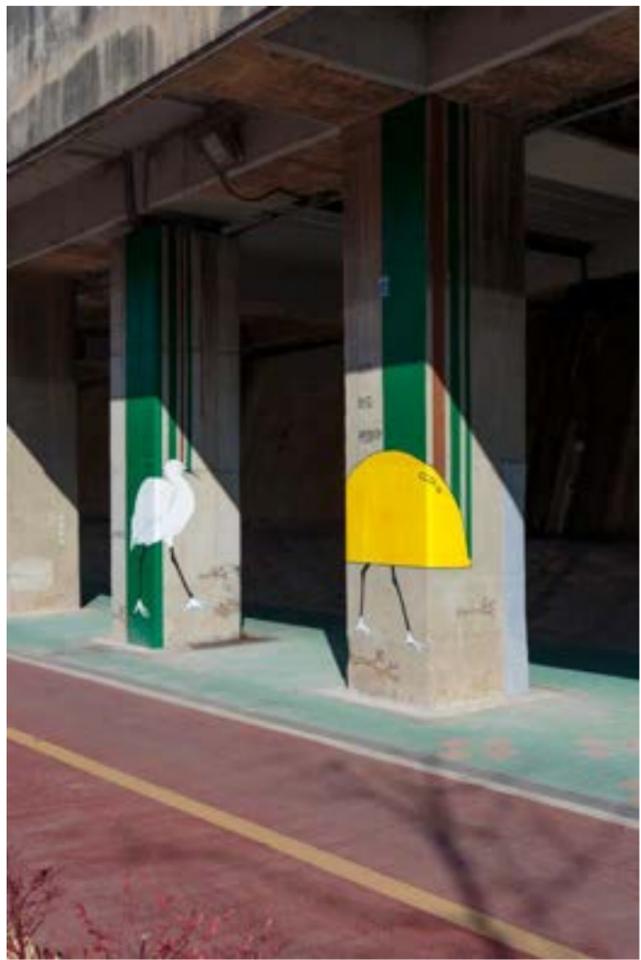
인포그래픽

프로젝트 추진기간:
2021/9-12(유지)



시민참여워크숍
2021년 10월 1일
영등포문화재단 귀빈실





도림천 다님길 프로젝트는 재단의 자체기획 공모로, 수변과 마을을 가로막고 있는 반복개 도로의 하부공간을 시각예술작품이 설치된 전시공간으로 탈바꿈하여 도림천을 산책하며 만날 수 있는 갤러리로서의 기능을 제시하고자 진행된 야외전시이다.

인공적인 개발이나 조성이 아닌 예술적 개입과 프레이밍을 통해 도림천을 에코-뮤지움으로 변환하고자 하는 취지를 살린 도림천 주제의 작품 공모를 22년 1월에 시작하였다.

도림천의 역사, 식생, 지역적 특성 등을 작품으로 표현한 46작품이 출품되었고,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인터뷰 대상 작품을 선정하였다. 2차 인터뷰 심사에서는 작품 창작 배경, 기획의도,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총 8작품(팀)이 최종 선정되었다.

‘도림천’을 주제로 한 커미션 형태의 본 전시 선정작은 도림천 환경에서 시민들이 시각적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설치와 조각,조형, 조명 및 스트리트퍼니처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선정 후 작가 워크숍과 작가 개별 미팅을 통해 도림천을 중심으로 한 전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조율하였다. 작품 설치시기는 작품 유실이나 손상, 그에 따른 안전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평균 강수량이 가장 많은 8월 이후로 하되, 겨울 전 보행로를 걷는 시민들이 작품을 만날 수 있도록 9월 중순으로 조율하였다. 작품성, 행정절차, 안전성을 등을 모두 고려해 관계부처의 허가를 받고 작품을 전시하기까지 약 4개월동안 참여작가들은 도림천을 수없이 다녀가며 작품을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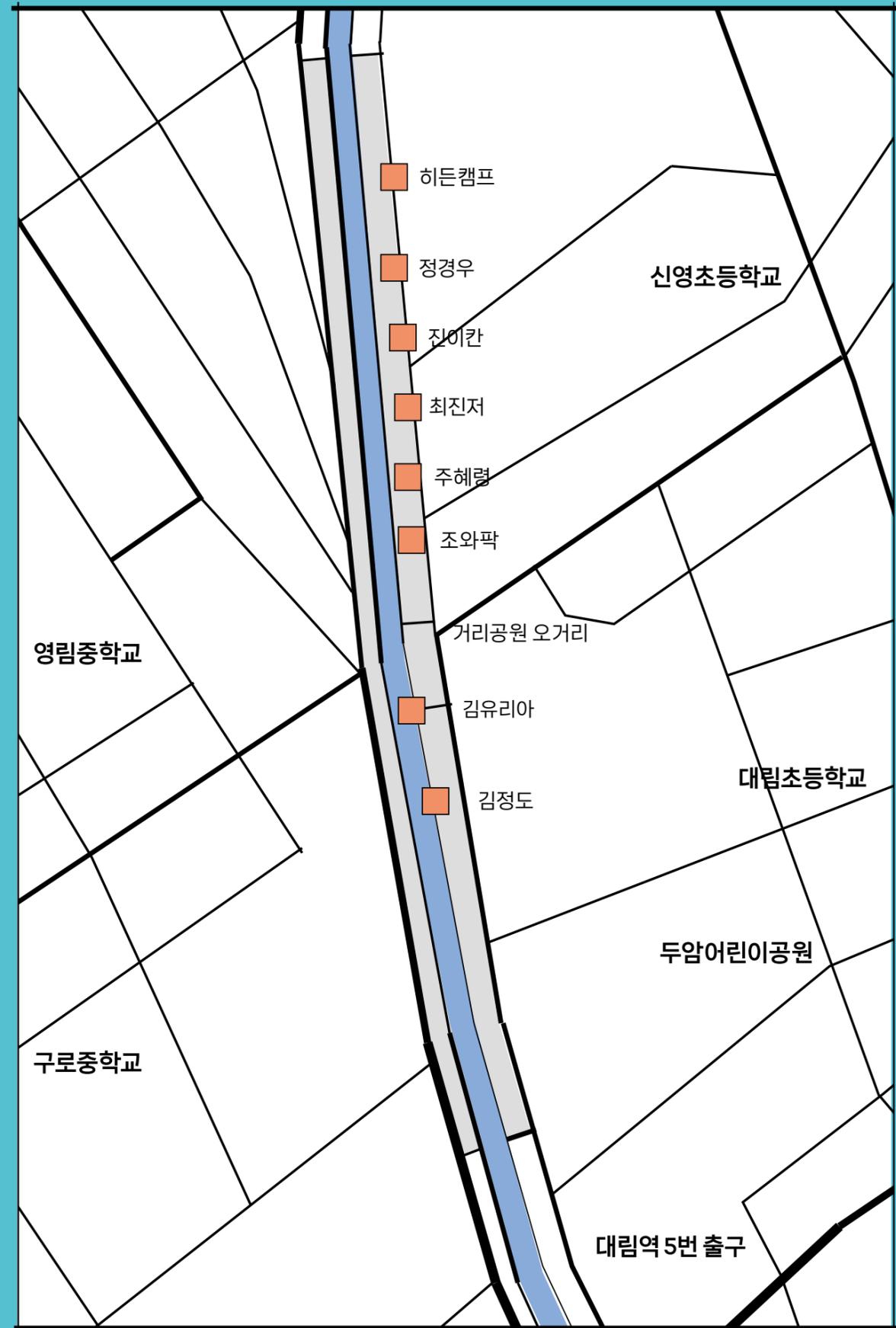
전시기간 중에는 재단과 작가가 현장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며 <도림천 생태극장> 본 사업의 소기목적이 무엇이었는지 환기할 수 있었다.

참여작가
김유리아, 김정도, 조와팍,
주혜령, 정경우, 진이칸, 최진저,
히든캠프

도림천 다님길 프로젝트



전시기간:
2022/09/17-10/23



현장 스케치 영상 보기

김유리아

김유리아 작가는 건축과 생태예술을 넘나들며 사람과 환경을 다루는 작업을 한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건축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장 실무 경력을 쌓으며 뉴욕주 건축사로 활동했다. 귀국 후 그는 귀국 후 다양하고 실험적인 방식으로 활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개인전

- 2019, 미국 뉴욕주 건축사, NYSED(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
- 2016, 미국 친환경 인증 기술사, USGBC(U.S. Green Building Council)
- 2015, Openness and Isolation, Columbia University GSAPP End of Year Show

그룹전

- 2022, <되어보기(The Becoming)>, 제주 글로벌 청년창의 레지던시, 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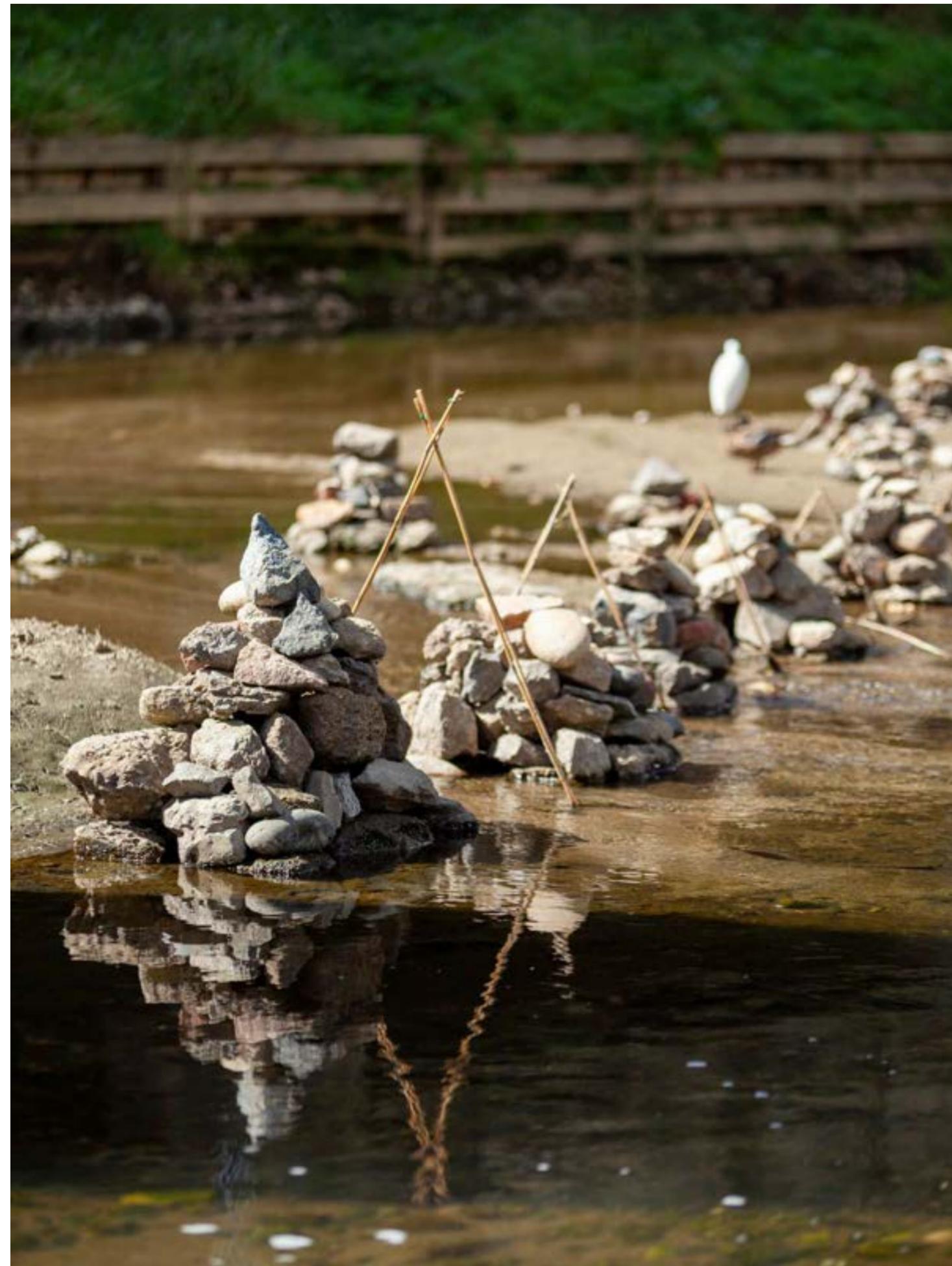


무한한 흐름 Infinite Flow

2022, 설치, 도림천 석재-콘크리트 블록, 가변크기

우리가 인지하는 것과는 별개로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흘러간다. 도림천 주위를 가만히 살펴보자. 당신의 시선에는 어떤 흐름이 보이는가? 우리는 흐름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 깃든 생명력도 함께 느낄 수 있다.

작품은 기존의 자연적 흐름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알맞은 스케일의 것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주 재료는 도림천에 있는 석재와 나뭇가지다. 다양한 형태와 질감을 가진 돌탑과 나뭇가지 오브제는 둔덕과 둔덕 사이를 가로지르며 재배치되었다. 이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기후에 따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도림천의 흐름을 보여준다. 오브제 자체는 결국 주변 환경 전체를 조망하며 기존에 존재하던 무한한 흐름을 느낄 수 있도록 이끄는 도구의 역할을 한다.



김정도

김정도 작가는 본인과 젊은 작가들의 현실적 문제들을 진정성 있게 접근, 이를 자유로운 방식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의 자유로운 감각은 자연 속에서 신선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된다.

개인전

2021, <지양하고, 지향하고>, 갤러리AnC, 서울

2020, <아무도 모른다>, 갤러리라이프, 서울

2018, <Beautiful and Useless>, 사이아트도큐먼트, 서울

그룹전

2018, <일부러 불편하게>, 소마미술관,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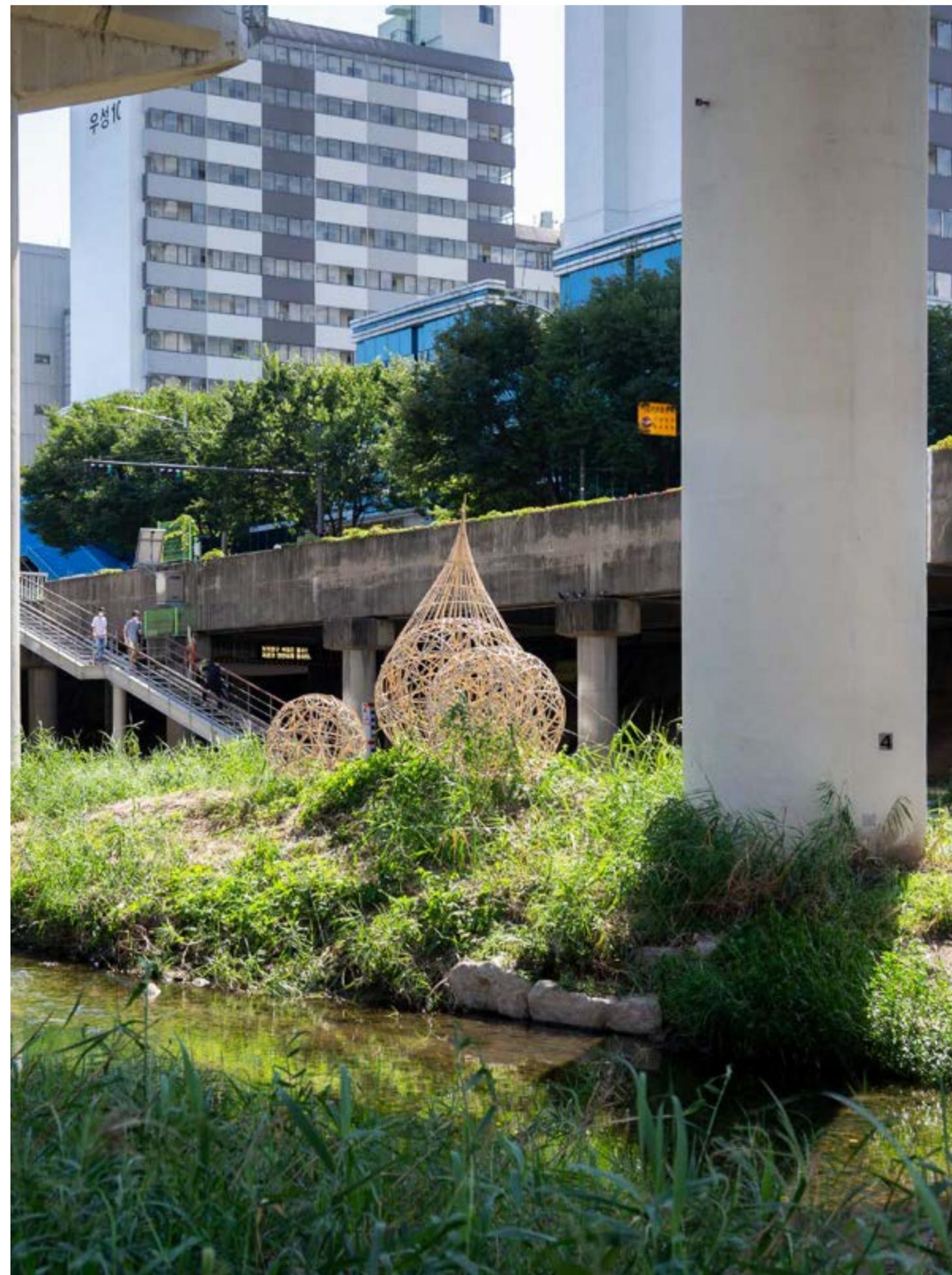
2017, <그림 밖 그림>, 대전시립미술관 창작센터, 대전

2016, <만보객의 서울유랑>,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

**모두를 위한 물방울****2022, 자연설치, 대나무, 가변크기**

모두를 위한 방울은 대나무를 이용하여 3개의 물방울을 이미지화 시킨 작품이다.

도림천 하천구간 중앙 둔덕에 자연 생태적인 설치작업을 통해 하천에 서식하는 새들과 식물들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도림천을 지나는 시민들에게는 물을 시각화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로써 물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이미지로 전달하고자 한다.



정경우

정경우는 평생을 서울에 살며 작가의 영감은 어디로부터 오는지에 대한 질문을 토대로 익숙한 일상을 낯설게 풀어내는 작업을 한다. 인터넷 덕후로, 인터넷을 하며 쉬지 않고 짧은 호흡의 사고를 이어가는데 이를 기반으로 유티과 밈(Meme)적인 요소를 작품에 가볍게 담아낸다. 서울에서 공예를 전공하고 현재는 공예 배고 다 하는 작가다.

전시

2022, 나루아트센터 스퀘어 프로젝트 <Art Symbol Trophy>, 서울

2021, <Dream + Monster>, 천안시립미술관, 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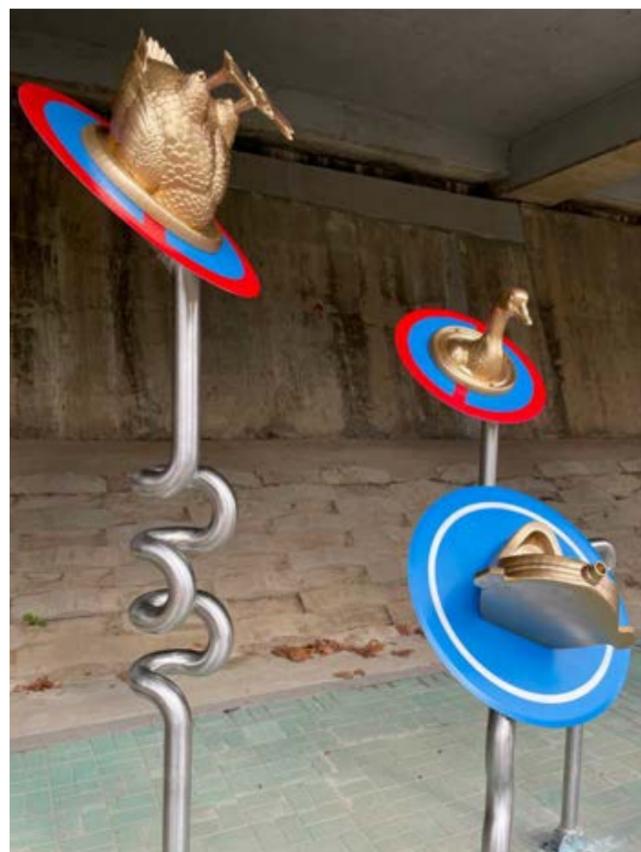
2020, <KF-94 Factory>, 롯데백화점 강남, 서울

수상

2021, 열린아트공모전 우수상, 신세계 프라퍼티

시티크리처 City Creature

2022, 설치, 스테인리스 스틸에 페인딩·sla프린팅, 가변크기 <시티크리처>는 도시에 산발적으로 널브러진 영감과 사고를 회로화하여 해독하고 공간(도시) 속 유기체(작품)를 감각적으로 배열한다.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닌 일상의 것을 낯선 시선으로 해체하고 일종의 '애너그램'을 통한 작가적 상상력으로 생명력을 부여, 가상의 생태계로 재구성해 선보인다. 기존의 도림천이 가지는 도시의 요소 중 고가도로의 교통표지판에 주목, 이를 활용한 작품을 키치하게 선보인다. 작품의 표지판은 도림천의 생태환경을 압축한 이미지를 기반으로 구성된 표지판들이 군집되어 하나의 가상 생태를 이룬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도심과 생태계에 대한 환기, 그리고 진짜와 가짜가 뒤섞이는 경험을 제공한다.



조와팍

박경진

박경진은 그리기라는 행위가 연결된, 생업과 작업사이에 놓여 있는 작가의 실존(생존) 모습을 회화작업으로 표현해 오고 있다. 생업의 현장인 세트장의 풍경을 형상과 배경, 노동과 유희, 일과 작품 사이로 접근해 풀어낸다. 최근에는 평면회화에서 확장하여 입체적으로 변형된 공간을 만들고 각종 물질과 오브제를 이용한 회화성이 짙은 공간회화실험을 하고 있다. 이 실험을 통해 세트장의 현장 모습을 전유하며, 회화 연구와 함께 '감각의 상상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중이다. 서울을 기반으로 작업 하고 있다.

개인전

2021, 〈색, 공간 I〉, 인천아트플랫폼 E1갤러리, 인천
 2020, 〈색, 공간〉, 인디프레스 갤러리, 서울
 2019, 〈색, 뒤〉, 갤러리 조선, 서울

그룹전

2021, 〈이토록 아름다운 : The Nature of Art〉,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2019, 〈현대회화의 모험 : 나는 나대로 혼자서 간다〉,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2018, 〈뉴스, 리플리에게〉, 북서울미술관, 서울

수상&레지던시

2021, 12기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인천문화재단, 인천
 2020, 서울문화재단 시각예술창작지원 B형 선정
 2018, 12기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레지던시, 서울시립미술관

조경재

조경재는 상황에 반응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는 작가다. 그의 개인작업은 사진 작업에서 시작된다. 그 작업은 컴퓨터로 작업을 한 것이 아닌 실제 공간 속에서 다양한 재료들을 설치하고 아날로그 카메라로 촬영한 순수사진 작업이다. 그는 현재 다양한 매체(설치, 조각, 사운드와 영상)로 사진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확장시키는 실험들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개인전

2021, 〈모든 것에는 깨진 틈이 있지, 빛은 마로 거리고 들어오지〉, This is not a church, 서울
 2020, 〈여좌본부〉, SeMA참고, 서울
 2019, 〈Blue cheese, Schierkeseinecke Gallery〉,
 프랑크푸르트, 독일

그룹전

2021, 〈송은미술대상전〉, 송은미술관, 서울
 2021, 〈SeeState(between)〉, 화이트블럭, 파주
 2021, 태화강 국제설치미술제, 태화강 국가정원, 울산

수상 및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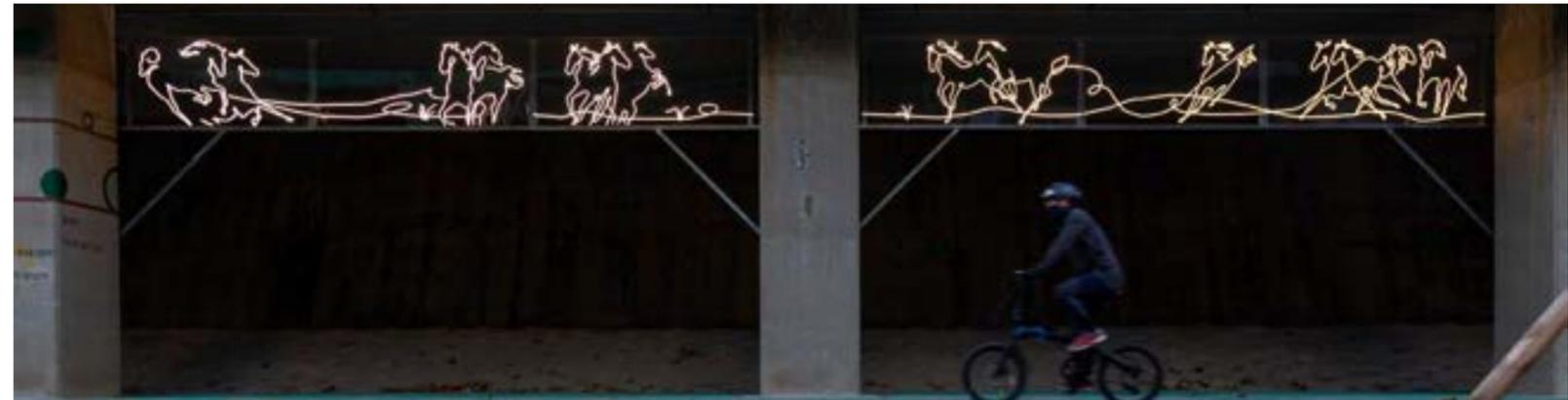
2020, 서울시립미술관 SeMA신진 작가 선정
 2019, KT&G SKOPF 선정작가
 2018, 아마도 사진상

휘-이-이-잉

2022, 설치, LED조명-아크릴판-아연각파이프

도림천을 리서치하며 가장 집중해야 부분은 어둠이라 의견을 모았다. 지형의 특성상 도림천 산책로는 주변의 지형과 비해 낮게 구조화 되어있고, 고가로 인해 전체적으로 어둡고 음침한 느낌이었다. 도림천의 장점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약한 지점에 먼저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그 고가 아래의 어둠에 상상력을 넣어놓는다면 어둠이 상상 속 배경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LED라이팅 작업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안정성과 시각적 효과의 극대화이다. 예전에 도림천 인근에 말 목장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에 착안하여 말이 뛰노는 풍경을 LED줄조명으로 형상화 하였다. 수평적 시점으로 보여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판단하여 투명 아크릴에 드로잉한 줄조명을 부착 후 교각 기둥 3개를 활용하여 상부 높이 설치하였다.



주혜령

주혜령은 일상 속에서의 소소한 상황과 감정들을 조각과 설치 형태로 작업한다.

개인전

2022, <The predictable fantasy>, 행궁길갤러리, 수원

2019, <그냥 내 기분>, 하이헤이헬로, 서울

2018, <사소한 감정>, 팔레 드 서울, 서울

그룹전

2022, <너와 나의 이야기>, 부산진구청, 부산

2020, <판교아트뮤지엄>, 현대백화점판교점, 판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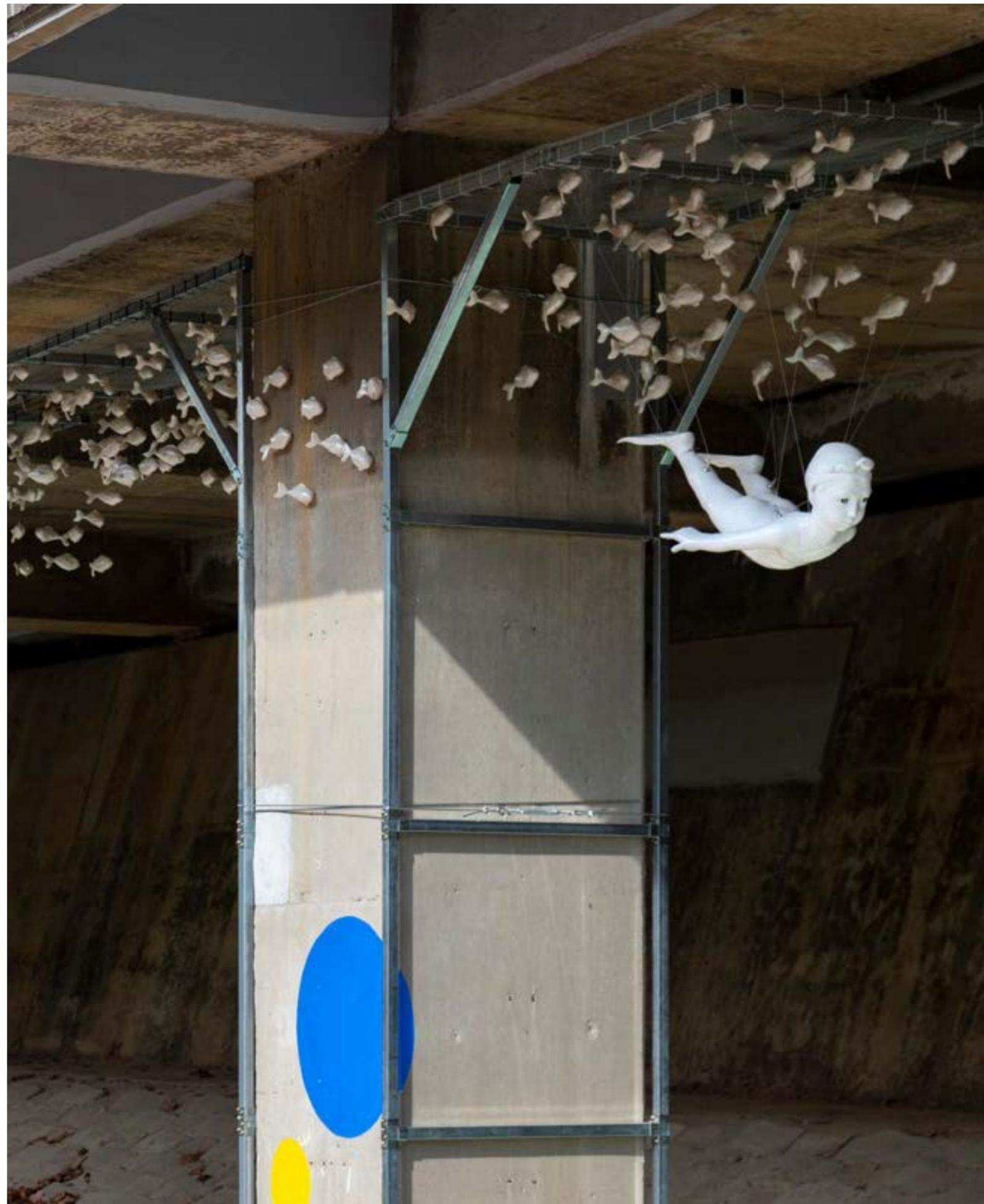
2019, <장난감의 반란 전>, 청주시립미술관 오창전시관, 오창

물고기

2013, 조형설치, FRP-무발포우레탄, 가변크기

끝없이 이어지는 물고기와 그 무리를 이끌고 헤엄쳐나가는 평범한 아이(작가)의 모습을 연출한 작업이다. 현재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도 각자의 비현실적 꿈 속에서는(하늘을 헤엄치는 것) 조금은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누군가 바라볼 나의 모습이길 희망해 보며 제작한 작품이다.

작가 본인과 군집의 동물들을 조형적으로 만들고 그것을 다양한 설치작업으로 조합하여 커다란 형태와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주로 하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도림천의 다양한 동식물과 도림천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에 환타지를 섞어 하늘을 유영하는 형태로 표현될 수 있도록 작업하였다.



진이칸

진이칸은 다문화 도시인 뉴욕에서 청년 시절을 보냈으며 이방인이자 마이너리티 여성 작가로서 치열한 생존현장을 왕래하였다. 페인팅, 설치, 영상, 퍼포먼스 등 전방위적으로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귀국 후에는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에 과감하게 도전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신화, 젠더, 자연, 모성, 다문화, 아시아, 이주여성으로 점철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이끌었으며, 동양철학을 깊게 탐구하는 기회를 맞는다. 박사졸업 이후, 현재는 타문화와 혼종된 아시아 국가 및 국내의 특정 지역의 현장을 찾아 로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개인전

2021, 〈Viridian〉, 연우 갤러리 초대전, 서울

2021, 〈클리셰템플 Cliché Temple〉, 신도림 오페라하우스 지하 소극장, 서울

2020, 〈떠나는 여자들 프로젝트2-Sorry I'm Art〉, 람풍 커뮤니티 아트 스페이스, 태국

그룹전

2021, 〈NO Art! NO Brand!〉, O형 공간, 서울

2021, 팝업 스튜디오 〈NO. 1, Do U Read Me?〉, 영등포시장역 크리에이티브샘, 서울

2020, 〈떠나는 여자들 프로젝트3-초대받지 못한 손님〉, 상디 갤러리, 태국

수상&레지던시

2019, 김해문화재단,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제1기 봉하 창작센터 입주작가 선정

2007, 키아프 주관, 제1회, KIAF finds hidden treasure 선정

2003, 기업 엔프라니 제1대 실험문화인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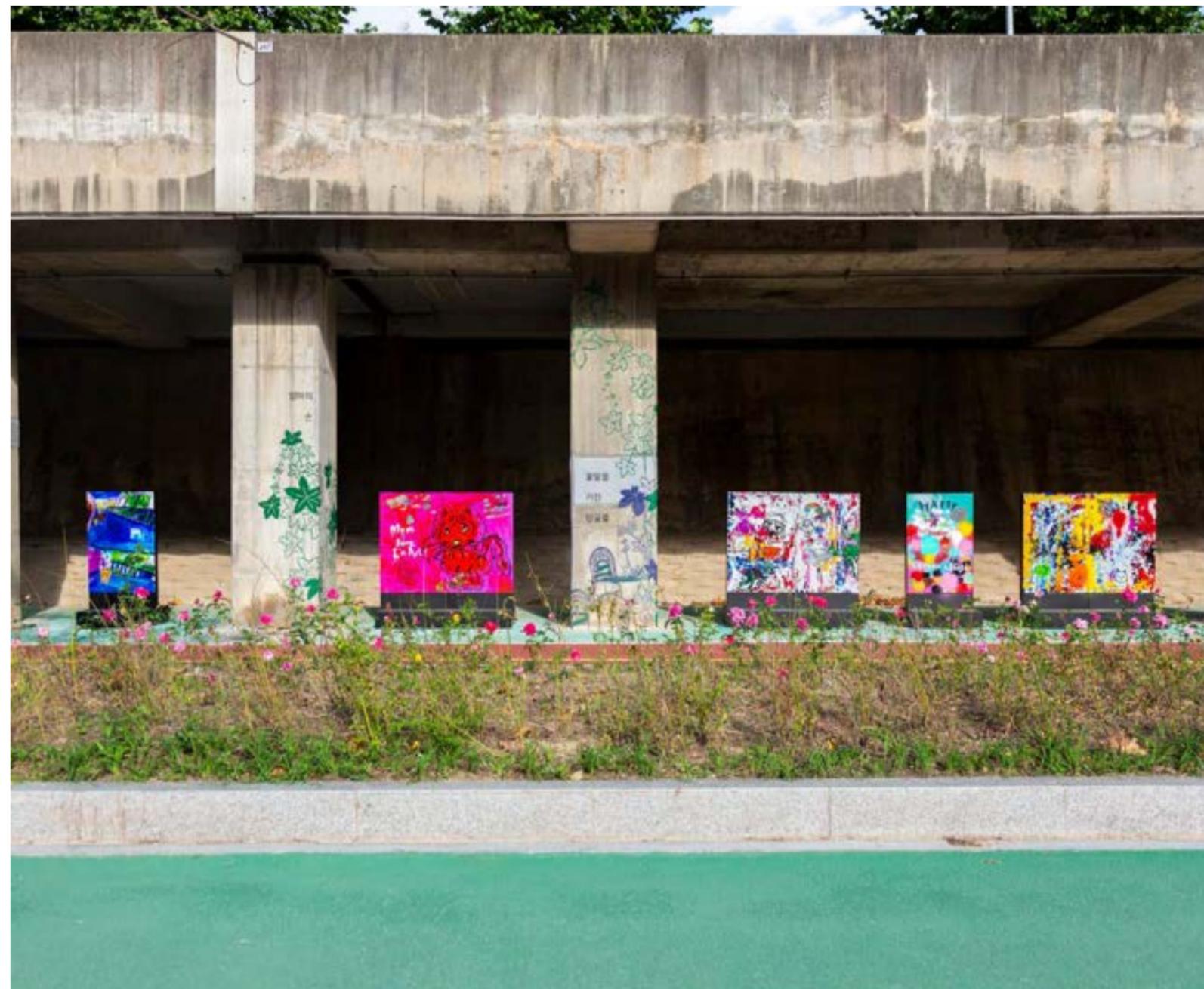
No.1 무빙갤러리-엄마가 말했다!

2022, 설치, 혼합매체, 가변크기

최근 몇 년 전까지 아시아 현장에서 로컬프로젝트를 진행했으나 갑자기 창궐한 코로나로 인해 급히 귀국하게 되었다. 이후 그간 주목했던 주제를 예컨대 - 빠른 근현대와 맞물려 성장한 아시아의 자본과 공존하는 식민의 역사, 인권, 노동, 젠트리피케이션, 예술과 계급, 이주민과 문화, 이주여성 등 현실의 문제가 직접 드러나는 영등포에 거주하면서 다양한 로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나는 다시 이주민이자 이주여성으로 낯설고 생경한 공간에서 나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한다.

매번 위기에 봉착할 때면 엄마가 어려울 때부터 하신 말씀이 떠오른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 나에겐 일종의 주문 같았다. 이것이 본 프로젝트의 시작이다. 즉, 고국을 떠난 여성(이주여성)이 그들의 엄마에게서 들었던 말들을 ‘기억’해 보는 것이다. 특히 아시아 여성에겐 더 많은 담론이 도출될 수 있다고 본다.

그 방법으로 어둡고 낯선 지역에 도착했을 때 어떤 심리적 안정을 주는 미디어를 찾는 방식으로, 그 지역의 역사와 삶의 편린이 중첩된 지하철이나 길거리 벽을 장식하는 특정 브랜드의 광고판이나 간판을 차용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은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들의 솔직한 감정과 내적 표현으로 채워지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엄마의 말’에 대한 화답일 수 있다.



최진저

최진저는 시각예술을 기반으로 서울에서 활동하는 문화 기획자다. 최근에는 예술의 치유성을 확인하고자 캠페인형 프로젝트인 〈수면유도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사회적 질병 또는 사회문제를 예술로 접근하여 해소 방안을 찾고 있다.

전시&프로젝트

2022, 제26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시민참여행사

〈7월의 할로윈〉, 부천

2022, THE LIFE OF AN ARTIST_한국 아티스트 그룹 비디오

프로젝션, 주프랑스한국문화원

2022, 〈파이프라인_기술랩 (Noise JAM)〉, 청년예술청, 서울

도림드림 Dorim Dream

2022, 조각, 복합재료, 175x154x30cm, 92.3x50.4x35.3cm

〈도림드림〉은 스테인리스와 깃털을 주재료로 선형과 원형을 기반 삼은 2개의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품의 제목은 '도림에게 꿈을 드립니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영등포에 거주 중인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과 상인들을 응원하며 선인장을 닮은 강인한 식물을 표현했다. 선인장에 핀 꽃은 철의 무게감을 중화시키기 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깃털을 사용하였다. 몸체는 비치는 표면 마감으로 어두운 교각 하부에서 빛을 반사해 폐쇄적인 분위기를 바꾸고자 하였으며, 두께를 최소화해 산책로 이용객에게 주변 장애물로 인식되지 않게 디자인 하였다.

이는 동물적 식물로, 도림천 산책로에서 볼 수 있는 동물과 식물이 아닌 환상적 요소로 거리에 존재하며 작품을 발견한 모든 사람들의 미래에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을 반영하였다.



히든캠프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 변화를 목격하고 도시를 기반으로 작업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도시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현상들과 도시를 이루는 요소들에 관심을 두고 작업한다. 도시의 여러 가지 요소들에 주목하고 도시의 구조속에서 주민들의 반응에 주목한다. 도시 구조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패턴과 이야기를 담으려는 작업을 하며, 이는 공공에서의 예술의 역할에 관한 고민으로 이어지고 있다. 개인적인 작업을 통한 개인의 이야기가 공공의 이슈로 확장되고 공공에서의 예술 역할에 대한 고민을 작업으로 풀어나가고 있다.

개인전

2022, <오래된 도시의 잔재>, 광명시평생학습원, 광명

2020, <사물채집>, 평화랑, 남이섬

2020, <Hawaii>, 아카이브봄, 서울

그룹전

2022, <반디산책: 지구와 화해하는 발걸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2021, <연결과 연장>, 예술청, 서울

2021, <내마음의 정원>, 구리아트홀, 구리

공공의 오아시스**2022, 설치, 철, 가변크기**

도림천은 대림동 이주민과 문래동 예술인들을 비롯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여가와 산책을 위한 공간이다. 4km에 이르는 반복개 도로 하부 공간에 조성된 도림천 산책길은 자전거 도로와 산책을 할 수 있는 인도로 구성되어 있다. 인도를 따라 가다 보면 교각 하부 공간을 만나게 된다. 이 공간은 교각의 슬라브 그림자 때문에 낮에도 어두운 분위기를 지낸다. 많은 기둥들이 위치하고 있어 공간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어려운 부분이다.

<공공의 오아시스> 프로젝트는 이러한 문제점에서 출발했다. 교각 하부공간은 콘크리트 구조 특성상 주변 환경이 무채색 위주로 되어있고, 그림자로 인한 어두운 환경 때문에 낮에도 어두운 분위기를 형성한다. 이러한 부분에서 공간적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밝은 컬러와 산책을 하다 머물러 쉴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을 기획하였다. 프로젝트 <공공의 오아시스>는 도시의 삭막한 콘크리트 구조안에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듯이 마주하게 되는 '쉼'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도림천 나들이 Part. 2

전시기간:
2022/09/22-10/26



수변갤러리 기획전시 <도림천 나들이 part.2>는 2021년 프로토타입으로 1일간 진행된 <도림천 나들이 part.1>와 이어지는 프로젝트이다. 21년 프로젝트는 자연재료와 퍼포먼스가 주를 이루었고, 이러한 실험과 시도를 통해 도림천 현장에서 자연설치작품의 공공예술로써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2년 프로젝트는 이 가능성을 토대로 자연재료를 비롯해 도림천 환경, 구조물 등 소재와 재료가 확장되었다.

22년도는 설치그룹 마감뉴스와 협약을 맺고, 마감뉴스 소속이자 참여작가인 예술팔레트(5인)이 기획에 참여하였다. 총 25명의 작가 도림천과 천변 산책로에 도림천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을 35일간 전시하였다.

참여작가

김성미, 김수진, 김순임, 김인수,
김정도, 김철민, 배숙녀, 송현호,
안경하, 오혜린, 이말용, 이명섭,
이명훈, 이종균, 이종은, 이홍한,
장영훈, 정국택, 정상수, 정혜령,
조미영, 조세진, 최용선, 최지은,
홍지희



현장 스케치 영상 보기

김성미

1970년 서울에서 태어나 홍익대학교와 동대학원에서 조각을 공부했다. 네 차례의 개인전과 1999년~2020년 마감뉴스 정기전을 비롯한 100여 차례의 그룹전, 아트페어에 참가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조각의 철, 나무, 돌 등 기존 재료의 거친 특성과 강인함에 대한 의문과 회의를 시작으로 '부드러운 재료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해석'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썼고, 이후 결혼, 출산, 육아라는 시공간적인 제약 속에서 변화를 추구해 왔다.

이후 가해지는 도구나 힘의 강도에 따라 때로는 부드럽고 따뜻하게, 때로는 날카롭고 차갑게 표현되는 이중성을 한 몸에 지닌 종이를 이용해 대립이 아닌 포용의 '아름다운 수평'을 추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 '사공토크'를 운영하며 여성 작가들과 함께 여성의 자립을 위한 기회와 여성적 감수성과 표현 방법을 찾아가고자 한다.

개인전

2021, 〈호흡의 시간〉, 공간일리, 서울

2014, 〈기억을 새기다〉, 갤러리도스, 서울

2002, 〈부권제-不權制-아버지의 권력〉, 갤러리창, 서울

1998, 〈의도 되어지는 인식〉, 이십일세기화랑, 서울

그룹전

1999~2020, 마감뉴스 정기전

작고 소중한 것들에 대한 기록**2022, 자연설치, 도림천식물, 가변크기**

부제: #자연 미술 프로젝트-작고 소중한 것들에 대한 기록

No. 4-서울시 구로구 도림천로 351

이 여정은 20여년 이상 마감뉴스 활동을 하며 자연, 환경, 생태미술에 대한 스스로의 고민에서 출발하였다. 그간의 활동이 자연을 배경 혹은 소재적으로 사용하는 표면적인 접근이었다면 근래는 자연을 알아가고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을 시각예술가의 시선으로 찾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식물들이 있다. 쉽게는 보도블럭이나 갈라진 건물 틈새를 비집고 자라는 이름 모를 잡초들을 만나기도 하고 도시의 가로수, 하천이나 공원, 숲에는 수백 종의 나무와 수천종의 풀들이 있다.

일일이 그 개체를 다 구별하고 이름들을 기억할 수는 없으나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살아있고 소중하다. 그럼에도 어떤 것은 명명되며 귀하게 쓰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잡초로 몽둥 그려져 외면 당하고 만다. 그 차이는 인간 기준에 맞춘 유용함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존재 하나 존재성 없는 식물, 작고 보잘 것 없으나 살아서 빛나는 식물들에 대한 기록이다. 서식지, 생육환경, 이주배경 등에 대해 리서치하고 이를 시각화한 과정을 담고 있다.



김순임

김순임은 이화여자대학교 조소과 학사와 석사를 전공하였다. 2007년 이후 24회의 개인전과 2002년 이후 개최한 300여회의 그룹전을 개최하였고, 아시아와 유럽, 미국 대륙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중요한 기획전과 비엔날레에 출품해 자신만의 표현방식을 선보인 바 있다.

개인전

2022, 〈The Unknown Edible Beauty〉, OCI미술관, 서울
 2020, 〈다대표2020〉, 홍티아트센터, 부산
 2020, 〈바다무지개〉, 규슈예문관, 치쿠고시, 일본

그룹전

2022, 〈공존:호모심비우스의 지혜〉, 팔복예술공장, 전주
 2022, 〈‘ㅅ’간극유영하기:사이시옷프로젝트_녹색〉, 공간:일리, 서울
 2022, 〈소요〉, 대안예술공간이포, 서울

수상

2017, KAP-코리아 아티스트프로젝트 선정, 한국사립미술관협회
 2010, '7TH ANNUAL ARTEBA-PETROBRAS VISUAL ARTS PRIZE', ArteBA'10),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
 2009/2010, '아르코영아트프론티어' 수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The Seat_도림천

2022, 장소특정적 현장설치, 도림천 바닥의 흙과 돌, 물, 500 × 500 cm

도림천의 물속에 들어가 앉아 본다. 내가 앉은 자리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 보고, 바닥을 닦아본다. 돌을 드러내고, 바닥을 닦으며, 자리가 드러나고, 자리가 물길을 만들어낸다. 감추어진 천바닥을 정성스레 들여다보고 그 흔적이 풍경이 되는 작업이다.



김수진

김수진은 1998년 첫 개인전을 열고, 여러 전시에 참여하여 작업을 계속해왔다. '사적이고 공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자'는 취지로 '사공토크'를 열었고, 새로운 예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시도하고 있으며 다양한 장르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새로운 시도에 도전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인 '아트 잠실'을 운영하고 있다. 신인 작가를 발굴하고, 예술가를 연결하는 예술 공동체 활동도 힘쓰고 있다.

개인전

2021, <얇고, 납작하고, 누운 사람들>, 아트잠실, 서울

1998, <오만한 이데올로기>, 갤러리보다, 서울

그룹전

2022, <When you sing you are where you are>, 리각미술관, 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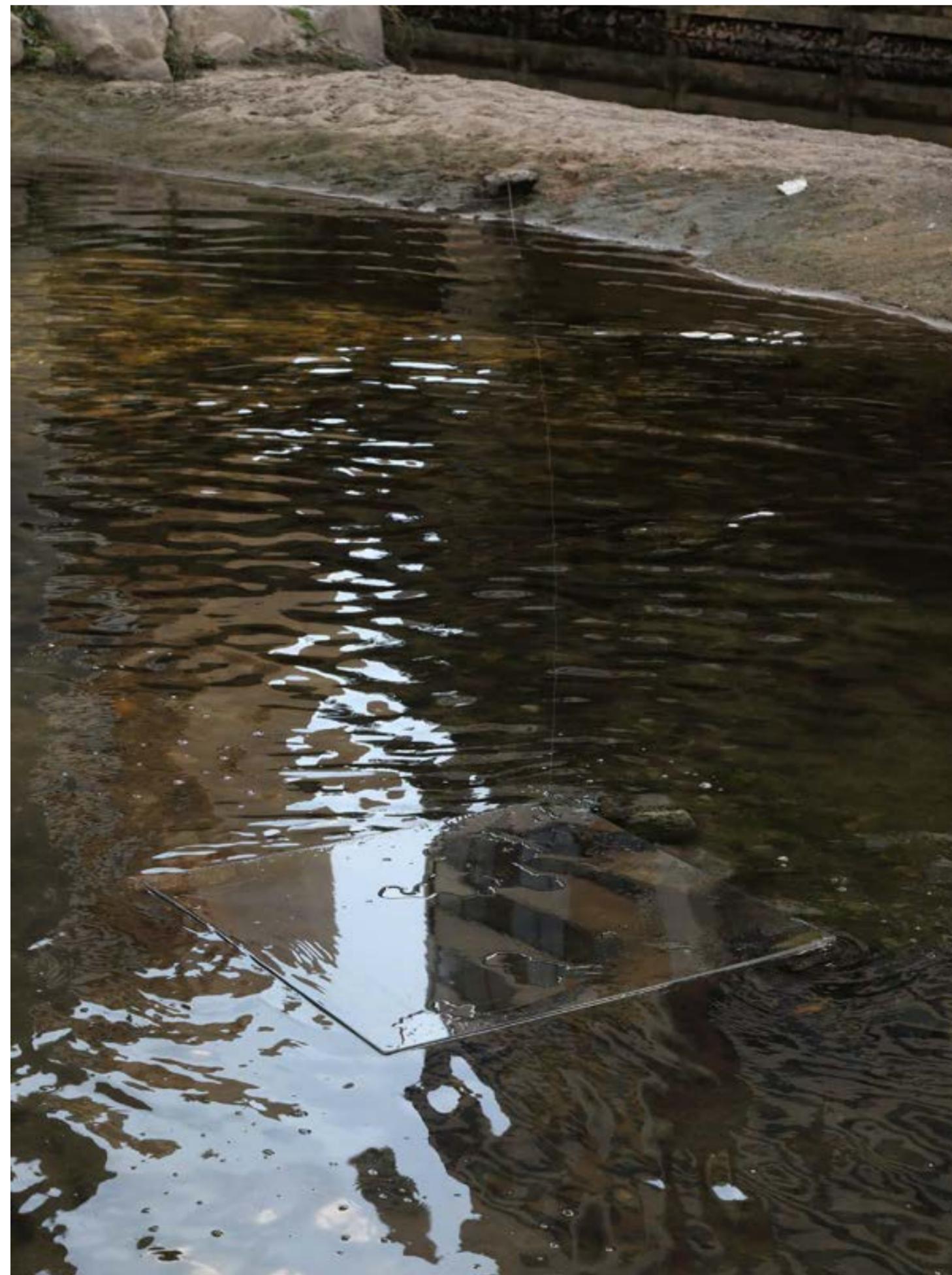
2021, <'4 + 4' A Cross cultural exhibition>, Wadi Finan Art Gallery, 암만/요르단

2021, <BAC 부여아트페어>, 충남 부여 규암리 일대

리플렉션 Reflection**2022, 오브제설치, 아크릴, 1㎡**

도림천의 길게 이어진 평안한 산책로에 반해 하천 중앙에 솟아 박혀 있는 거대한 기둥들, 썩 물결이 있어야 만들어질 수 있는 둔덕들, 그리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나무들은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당해 낼 수 없는 자연의 힘을 유유히 보여주었다. 하천가 주위로는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으나 물이 흐르는 천의 안쪽은 너무나 거친 자연의 모습 그대로였고, 얼마 전 내린 기록적인 폭우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에 충분하였다. 처음 방문했을 때 채 20cm가 되지 않을 수심의 도림천에 반사된 구조물들과 주변 아파트들이 천의 품에 품어진것 같다는 느낌이 든 이유 또한 납득이 되었다.

이번 전시에서 도림천이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을 품은 모습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1㎡의 면적에 자연에 포함되지 않는 인공의 환경을 조성해서 자연과 분리시켜보고자 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꿈이었다. 도림천에 부유하는 것들은 그 작은 1㎡ 마저 잠식해버렸다.



김인수

한지위에 수묵으로 자연의 에너지를 드로잉 하는 작가다. 자연물이 한지에 직접 스케치 하도록 설치하기도 하고, 한지가 자연과 어우러져 그림이 되도록 하기도 한다.

개인전

- 2021, <네 개의 창>, 갤러리 한옥, 서울
- 2020, <진정산수>, 퍼블릭 갤러리, 서울
- 2019, <조용한 힘>, 갤러리 도스, 서울

그룹전

- 2022, <아시아프&히든아티스트 선정>, 홍익대학교 미술관, 서울
- 2019, <학의천에서 예술찾기>, APAP오픈스튜디오, 학의천, 안양
- 2018, <아트경기2018>, 경기도청 및 경기도 일대 순회전시

수상

- 2022, 중앙회화대전 동상, 한국미술관, 서울
- 2020, 신진미술인 지원을 통한 일상전시사업선정, 서울시청
- 2018, 단원미술제 선정작가, 단원미술관, 안산

조용한 힘

2022, 자연설치, 한지-도림천석재, 가변크기

도심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며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고 있는 자연은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 인간과 공존하며 삶을 지탱하고 있는 자연의 역할은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우리가 인지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작품은 자연을 통해 인간 또한 살아있음을 느끼고 자연을 품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한다. 수묵으로 드로잉한 자연물들은 하천의 바위돌과 만나 새로운 에너지가 되어 도림천을 산책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길 바란다. 고정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바위 돌은 자연을 품고 있으며 조용하게 그 에너지를 뿜어내기에 알맞다.



김정도

김정도는 본인과 젊은 작가들의 현실적 문제들을 진정성 있게 접근, 이를 자유로운 방식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그 자유로운 감각은 자연 속에서 신선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된다.

개인전

2021, <지양하고, 지향하고>, 갤러리AnC, 서울

2020, <아무도 모른다>, 갤러리라이프, 서울

2018, <Beautiful and Useless>, 사이아트도큐먼트, 서울

그룹전

2018, <일부러 불편하게>, 소마미술관, 서울

2017, <그림 밖 그림>, 대전시립미술관창작센터, 대전

2016, <만보객의 서울유랑>,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

호접몽**2022, 자연설치, 나뭇가지, 가변크기**

호접몽은 도림천 하천 중앙 둔덕에 있는 나뭇가지와 풀들을 청소하듯 정리하고 모아서 빗자루 모양의 형태를 만들어 설치한 작업이다. 둔덕에 있는 자연(나뭇가지와 풀들)이 모여서 빗자루 형상이 되어 있으면 마치 정리된 자연이 빗자루가 된 것인지, 빗자루가 자연을 정리한 것인지 알 수 없음을 표현하였다.



김철민

김철민은 경기 파주에 거주하며 오브제를 통한 문명의 이야기를 담론화 하는 작업을 하였다. 유용성을 잃어가는 사물의 유한한 가치로부터 인류의 변화를 발견하고 새롭게 다가올 법한 문명을 상상해본다. 주로 사물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키네틱 작업을 하였으며, 최근에는 디지털화 되어가는 현대문명의 모든 것이 새로운 디지털 빛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생각에 LED등 디지털 칼라에 주목하며 빛을 디자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개인전

2019, 〈Bokeh〉, 그림바위예술발전소미술관, 정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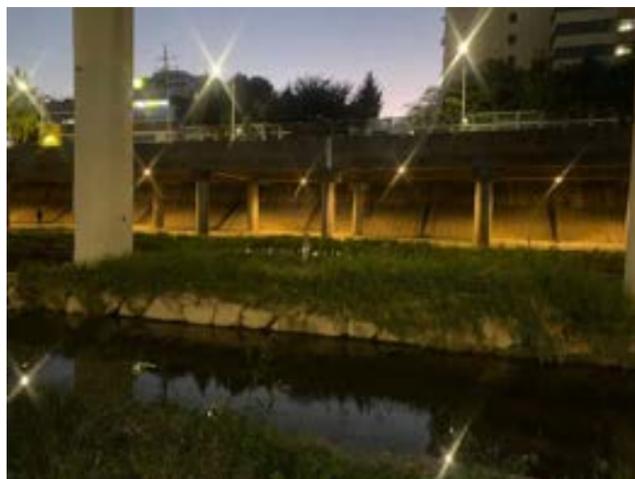
2017, 〈Staccato〉, 정부서울청사갤러리, 서울

2014, 〈Remain〉, 민갤러리, 춘천

그룹전

2022, 〈한강조각프로젝트-낙락유람〉, 서울

2021, 〈그림바위마을 키네틱아트캠프〉, 정선

**브라이트업 Brighten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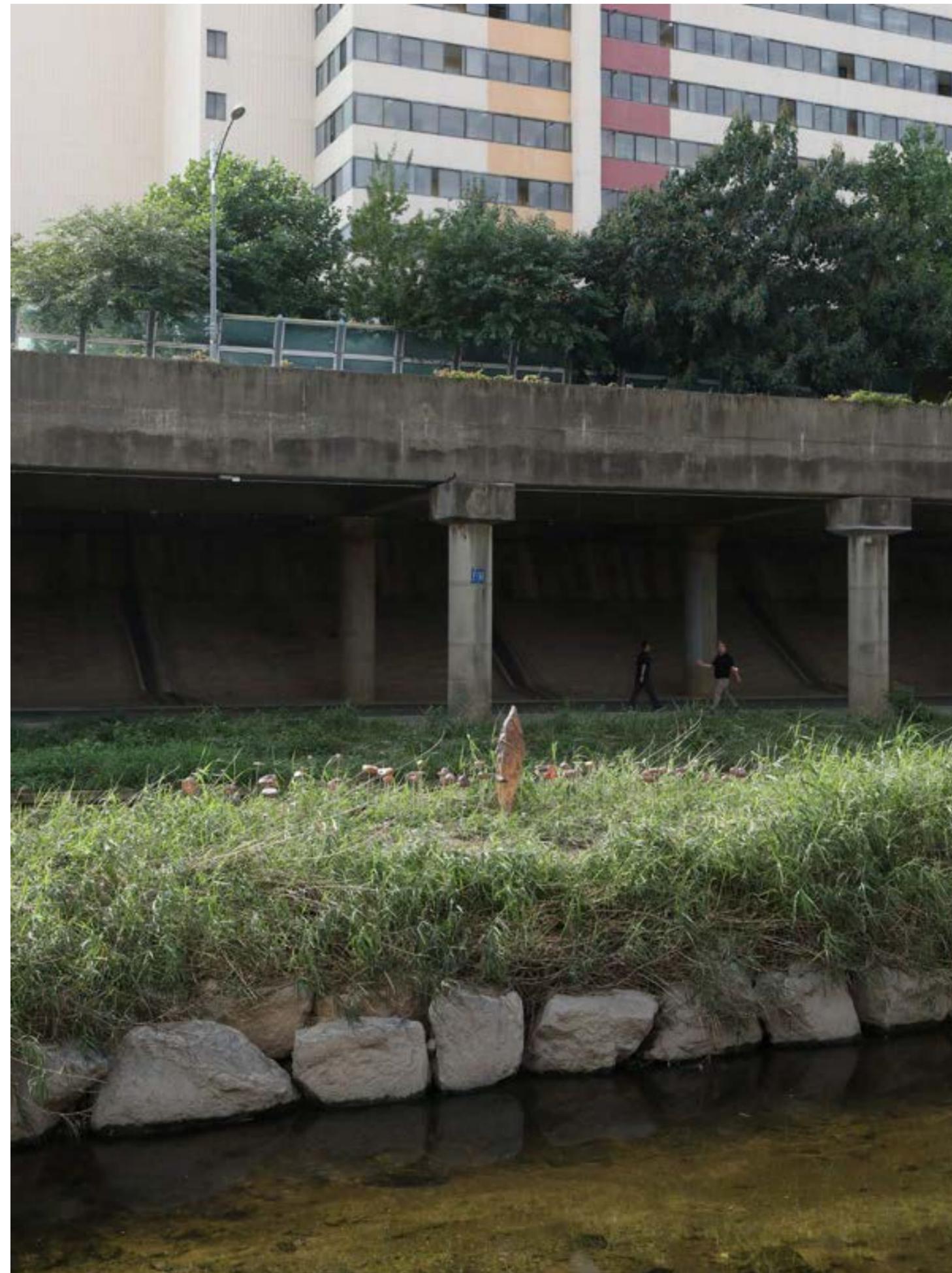
2022, 조각설치, 투명레진·태양광led, 가변크기

대림역을 중심으로 한 수변공간은 많은 이들이 다양한 의미로 이용되고 있었다.

도심 안에서 생태가 보존되며 인간의 삶과 공존 한다는 건 많은 이들의 노력과 관심이 있기에 가능하다. 지켜야할 지역의 환경과 이와 상충하며 개발되는 도시의 문명은 각각의 위치에서 독립된 의미로 존재하고 있다. 예술가의 시선에서 바라본 도림천 수변의 구조는 위로 빠르게 발전하는 문명이자 아래로 보존되는 자연의 모습이며 마치 빛과 어둠의 관계로 느껴졌다. 보다 나은 편린의 삶을 위해 끊임없이 개발되어 변화되는 도심은 빛처럼 밝았으며 그에 비해 유지보존되는 하천은 도시의 그림자처럼 어두운 그들의 모습 그대로였다.

〈브라이트업 Brighten Up〉은 이러한 공간에 빛처럼 밝은 옷을 입혀보고자 한다. 유유히 흐르는 물 아래 놓여져 세월의 업을 고스란히 담고 있을 돌들을 부유하게 할 것이며 하루해가 저무는 시간에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뽐내길 바라고 투명레진으로 제작된 돌에 빛을 품게 할 것이다.

어둠이 강한 수변 길에 자연이 스스로 밝은 빛으로 재탄생하길 기대하며 작품을 제작했다.



배속녀

작가 배속녀는 '자연+치유+유희'라는 주제로 복잡한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마주치게 되는 감동적인 것, 자연물에서 연상되는 소소한 이야기, 공간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를 다룬다. 이를 통하여 보는 이가 새로운 시각으로 천천히 자연을 들여다볼 수 있는 설치 작업을 주로 한다.

개인전

2008, <드러내다 Unveil>, 성신여자대학교 수정관 대 전시실, 서울

그룹전

2022, <야외설치그룹 마감뉴스 정기전 {}>,
그림바위에술발전소, 정선

2020, <35회 마감뉴스 야외설치전 '불확실하게 확실한 네트워크_비대면 릴레이전'>, 서울·포르투갈

2019, <34회 마감뉴스 야외설치전 '보물창고와 여행자'>, 영도 보세창고, 부산



모이자!

2022, 자연설치, 색테이프·자연석, 가변크기

먼 산을 보며 일탈을 꿈꾸는 돌 하나를 보며 나를 보게 되었다. 움직일 수 없는 육중한 무게의 돌을 움직일 수 있는 경쾌한 무게감으로 탈 바꾸는 작업을 통해 정체된 현실에서 탈출을 시도하는 꿈을 꾸는, 움직일 수 있는 다리를 달아주듯 박스테이프로 캐스팅 작업 후 가벼운 몸을 만들어 주고 물에 띄우는 작업을 했다.

대림역 주변을 돌아보며 한글보다 중국어가 더 많은 간판, 전단지, 언어 등 익숙하지 않은 낯설음을 느낀다. 대림동은 다른 지역에서 이동하여 정착한 사람들이 모여사는 곳이다. 길 주변에 있거나 조경으로 쓰인 돌, 물에 쏠려 정박한 돌은 각자의 사연을 지닌 채 다양한 크기와 모양으로 위치해있다. 이런 모습이 대림동에 모여사는 주민처럼 느껴졌다. 사연 담은 돌들을 색 테이프로 캐스팅 작업을 한 후 별이 잘 들어오는 물 위에 띄워서 모여 유유히 즐기는 놀이 공간이자 무대를 만들어보고자 하였다.



송현호

송현호는 자연의 요소에서 오는 풍경이나 그 속에 흔히 볼 수 있는 들꽃 같은 형상을 작가적 감성으로 새롭게 해석한 형태로 표현하는 작업을 한다.

개인전

2020, 〈bloomingness〉, 정수아트센터, 서울

그룹전

2022, 문신 탄생100주년기념 특별전 〈조각의 모든방법-

CARVE CAST〉, 창원시립문신미술관, 창원

2022, 〈ITALY 조각페스타〉, 아트뮤제, 서울

2022, 〈ART DMZ/평화와 통일을 여는예술가들 정기전〉,

예림미술관, 군산 외 다수

수상

2006, 1th Rocco Addamiano 국제 공모전, 금상

Nova Milanese, 이탈리아

2005, 10th Satura 국제 공모전, 1등, Genova, 이탈리아

1999, 25th 부산미술대전, 대상, 부산, 대한민국

**취급주의**

2022, 오브제설치, FRP-파손주의스티커,

200 × 200 × 200 cm

사람형상의 조형에 파손주의 스티커를 붙인다.

우리는 작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파손되기 쉬운 물건이 있을 때 파손주의라는 문구를 사용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정도 파손주의라는 문구를 대입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안경하

이화여자대학교 조소과 및 동대학원 졸업

개인전

2014, <63-있었다>, 아트스페이스 수다방, 서울

2011, <Escape or Freedom>, Elga Wimmer Gallery, 뉴욕

2007, <Northeast asia art festival in Kitakyushu>,

West Japan convention center, 일본

하지 않는 것 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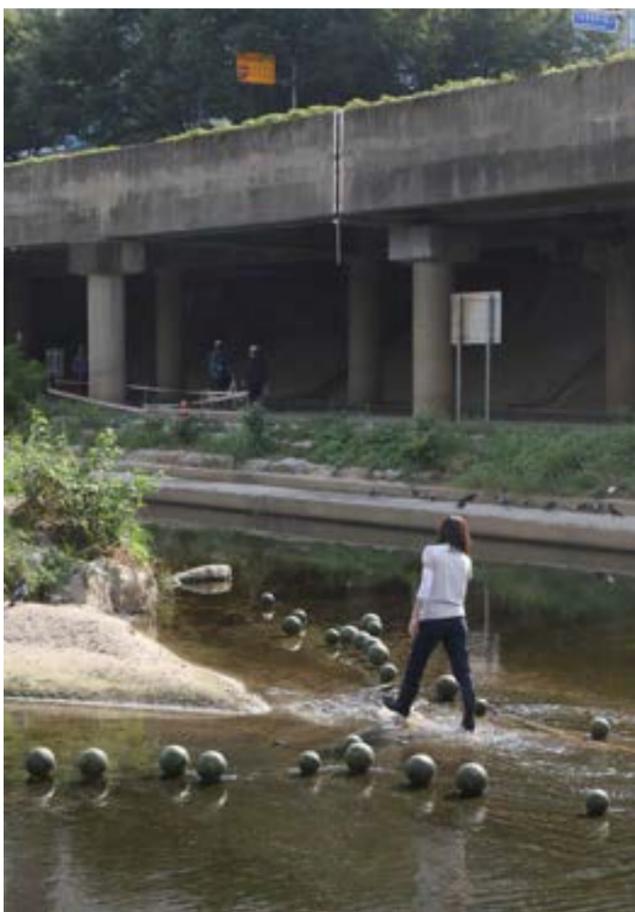
2022, 자연설치, 나뭇잎·자연석, 가변크기

도림천 물길에 올해 자라난 나뭇잎들을 띄워서 사람이 살아가며 하는 수많은 행위 중 기억하고 기록되는 것들과 잊고 싶고 잊혀지는 것들에 관해 이야기 한다.

작년과 올해, 몇 차례 도림천을 방문했다. 이전에도 가끔씩 차나 지하철로 지나던 곳이다. 계단을 내려가 도림천 돌레길을 걸으며 도림천 물길에 담긴 풍경에 나와 내가 바라보는 사람들이 겹쳐 보인다.

대림역 부근의 도림천은 지상 전철 길을 위한 교각으로 물길이 나뉘고 합쳐지며 흐르고 있다. 수면에 비친 도림천 주변의 풍경들은 나의 일상 풍경(하늘, 천을 따라 심어진 나무, 자라난 풀, 그리고 지어진 아파트)이다. 그 형상은 물의 상태와 흐름으로 변형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올해 자라난 나뭇잎들'은 물길에 따라 부유하며, 수면 위에 가려지고 또 보여질 것이다.



오혜린

오혜린은 한국과 프랑스에서 시각예술을 공부하고 경기도 양주에서 사람과 자연에 대한 작업을 하며 프랑스에서 시작된 <나와 우주의 드라마>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창문과 문을 지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 만난 자연에 관한 시리즈 연작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연, 사람,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며 작업 하고 있다. 공연예술인들과 협업하여 연극을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차별에 저항하고 있다.

개인전

- 2022, <야외설치그룹 마감뉴스 정기전, { }>, 그림바위예술발전소, 정선
- 2021, <평화 오르N아트 설치미술전>, 한강중앙공원, 김포
- 2021, 아시아스토리 어린이 청소년 콘텐츠제작 시범공연 <저기, 오니가 온다> 시범공연, ACC, 광주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For Whom the Bell Tolls

2022, 자연설치, 혼합매체, 가변크기

2022년 8월 8일, 폭우로 인한 침수로 대피하지 못해 3명이 사망한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어느 사람이든지 그 자체로 온전한 섬은 아닐테니
 모든 인간이란 대륙의 한 조각이며 또한 대륙의 한 부분이라.
 만일 흙덩이가 바닷물에 씻겨 내려간다면
 유럽 땅은 또 그만큼 작아질 것이며
 모래 벌판이 그렇게 되더라도 마찬가지로
 그대의 친구 혹은 영지가 그렇게 되더라도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나를 감소시키나니
 나란 인류 속에 포함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리라.*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애써 사람을 보내지는 말라.
 종은 바로 그대를 위하여 울리는 것이므로.*

-존 던의 기도문 'Meditations 17'의 구절



이말용

이말용은 낯선 현장을 찾아 늘 새로운 자연과 조우하며, 공간을 해석하고 물성과 대상의 시간성을 엮어내는 작업을 해왔다. 인간의 생로병사와 희노애락을 인생무상의 관점으로 풀어내어 우리의 욕망이 '존재로서 존중되기'의 서사를 자연에 투영시켰다. 이로써 버려지거나 쉽게 지나치는 대상에 '의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다시 보기'를 시각화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인간의 욕망과 서사를 자연에 투영하여 그런대로 잘 존재하던 것에 대해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그리하여 살아가면서 겪는 갈등과 시간성이 사유로 전환되는 지점에 관심을 두고 작업한다.

개인전

- 2022, <무명씨의 유목화>, 충무로영상센터 오재미동갤러리, 서울
- 2022, <잠시,머물다>, 아트허브 선정작가 온라인 개인전, 서울
- 2021, <시간을 꿰매어 공간을 짓다>, 문래예술공장M30, 서울

그룹전

- 2022, <야외설치그룹 마감뉴스 정기전, ()>, 그림바위예술발전소, 정선
- 2022, <ART DMZ>, 팔마예술공간, 군산
- 2022, <나, 무로부터 열람>, 공간일리, 서울

초록에 의지하다

2022, 자연설치, 이끼·철, 가변크기

이번 여름 도림천이 다시 범람하여 많은 서식 종이 쓸려 내려갔다. 이후 그 주변을 지나며 우연히 바라본 도림천 주변은 밀려 내려온 흙과 풀더미의 잔해, 쓰러져가는 나무가 그 시간을 상기시키고 있었다.

피해와 아픔을 남기고 지나간 자리의 흔적을 거둬내고 다시 살아내는 힘. 이 터전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이들의 힘겨움과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앞에서 망연자실했던 우리 이웃의 시간을 상기시킨다. 살기 위해 꼭 필요한 물이 순식간에 누군가의 목숨을, 누군가의 터전을 위협하고 넘실거리며 모든 것을 훑고 지나갔다. 그리고 그 자리에 습기를 머금고 이끼가 자라난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견뎌내고 다시 살아가는 이끼를 보며 우리 삶 또한 이끼 같다는 생각을 했다.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생을 이끼를 사용해 조형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이명섭

서울과 경기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알 수 없는 공간의 틈에 대한 작업을 한다.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일상적인 생활의 모습을 지키며 작업을 해오고 있다. 감정이라는 비가시적인 현상을 조각, 설치, 영상 등의 표현 방법으로 다양한 시각적인 형상화와 편집된 소리들을 구성해 이야기를 만든다. 일상생활에서 수집한 일상의 것들을 연구한 결과를 변형 하고 그 변형으로 인해 확장된 생각과 수집한 결과들을 모티브 삼으며 작업한다.

개인전

- 2021, <감정정원 : 틀어진공간>, 문화공간주차, 대전
- 2020, <Rendering>,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 2017, <Movement>, 충무영상센터 오!재미동 갤러리, 서울

그룹전

- 2022, <야외설치그룹 마감뉴스 정기전,{ }>, 그림바위예술발전소, 정선
- 2021, <2021 평화 오르 N 설치미술>,한강중앙공원 일원, 김포
- 2020, <에콜로지, 지혜의 창고_Ziggurat Art Festival>, 신중양요업(주), 벽돌공장, 연천

레지던시

2019-2020, 청주 미술창작스튜디오 13기 입주작가



사이공간 Space Between

2022, 오브제설치, 철-라인테이프-혼합매체, 가변설치
나는 틈이라는 공간에 집중하는 것을 그 알 수 없는 공간에 무엇이 있을 지에 대한 상상을 하면서 관찰하게 되었다. 그 공간은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 드러나기도 하고 또 감춰지기도 한다. 비가시적이고 불확실한 공간 안쪽이기에 크고 작은 모호한 감정들이 만들어진다. 작업은 그러한 모호한 감정들의 불확실에 대한 관찰에서 시작하였다.

공간과 소리, 빛이라는 소재는 나에게 흔적(감정)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관계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한다. 그러한 질문들은 나를 자극하고 긴장감을 형성하는 동시에 즐거움을 준다. 내가 만들어낸 가상의 공간과 일상의 소리, 빛의 관계 맺음과 지속적인 조율을 통해 연결고리를 만들어 나간다. 도림천이라는 낯선 공간에서 닫혀진 구조물의 틈을 통해 들리는 일상의 소리와 소음 들은 서로 뒤섞이는데, 작가가 경험한 일상-감정의 변화-긴장의 상황을 작품을 통해 공유하고자 한다.



이명훈

이명훈은 서울과 경기를 기반으로 조각과 자연미술에 대한 작업을 한다. 현 한국조각가협회 고양지부 소속이며 현 마감뉴스 회원이다.

개인전

2021, <이명훈 초대>, 도든아트하우스, 인천

2017, <이명훈 개인>, 갤러리 오, 서울

2015, <이명훈 개인>, 갤러리 푸에스토, 서울

그룹전

2022, <국제조각페스타>, 예술의 전당, 서울

2022, <BAMA>, 벅스코, 부산

2022, <이명훈/이용태 2인전>, K2코리아 아트라운지, 서울

풍경을 담다

2022, 오브제설치, 나무·스테인리스스틸, 100 × 100 cm

나무이젤 위에 캔버스 대신 거울을 부착하여 반대쪽 풍경이 비춰져 장소의 풍경이 그대로 담겨 마치 풍경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해학적 요소 혹은 작가만의 표현방식으로 구성했으며, 보는 이로 하여금 즐거운 상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늘과 풍경이 비치도록 형상화 하였다.

작품을 보는 시민 모두가 행복과 좋은 추억을 그림을 그리듯 캔버스에 담아 기억했으면 하는 작가의 바람을 작품에 담았다.



이종균

최근까지 수행적 의미로서 신체적 드로잉을 해왔다.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수월하게 도달할 수 있는 기존의 길 보다는 새로이 길을 만들어 가는 작업으로 노동과 삶의 가치에서 예술적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또한 작가인 '나'로부터 출발한 작업이 외부의 다른 요소(장소)와 충돌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의미가 발생하고, 그것이 작품의 의미를 재구성함으로 결과마저도 작업 과정으로 치환된다. 작가인 '나'의 작업(일)과 그 장소의 역사적, 사회적, 환경적인 특징들이 연결되고 교차하면서 의미가 발생하는 지점을 작품의 완성이라 본다.

개인전

2010, <320m, 396개의 블록 이동>, 의정부 문화살롱 공, 의정부
2009, <마을 이야기>, 법원읍 동문리 마을회관, 파주
2007, <화해>, 관훈갤러리, 서울

그룹전

2015, <보다-바다와 씨앗>, 바다미술제, 부산
2015, <글로벌 노마딕 아트 프로젝트-코리아>, 금강자연미술센터, 충남 공주

레지던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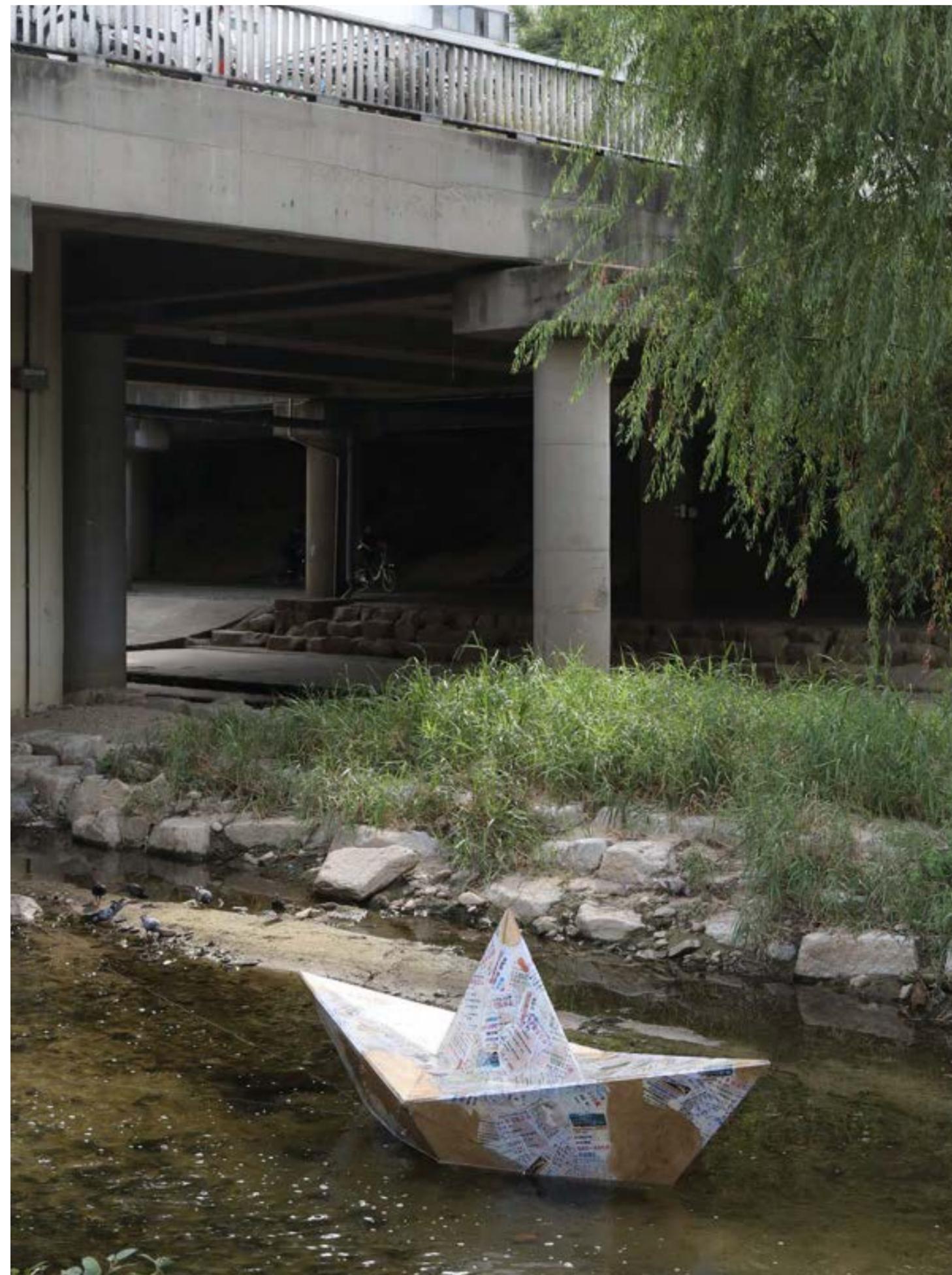
2014-2015, 경기 창작센터
2012, 문화살롱 공
2010,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니하오**

2022, 자연설치, 합판, 300 × 150 × 150 cm

작품이 놓여질 도림천에 처음 왔을 때 보였던 것은 냇가 중심부에 철도를 받치는 커다란 교각과 다리였고, 냇가 좌우로는 도로 밑 시멘트 구조물로 이루어진 산책로였다. 도림천 주변은 온통 직업구함 벽보와 외국어로 된 간판들로 빼곡히 채워져 있었는데, 마치 자연 생태 공원이라기보다는 도심의 치열한 삶의 현장이 자연을 가뒀버린 듯한 느낌이었다.

이러한 각박함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생계를 위해 혹은 가족의 행복을 위해 하루하루를 버티는 가장들의 무게로부터 조금은 벗어나서 순수했던 어린 시절 꿈꿔왔던 기억들을 소환하여 각박한 세상 속에서 위로가 되는 최소한의 숨이 되고자 '니하오(안녕하세요)'란 제목으로 작품을 구상하였다.



이종은

이종은은 마을과 교육에서 다양한 네트워크의 활동을 하며 관계와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고민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삶이며 작업 또한 그 맥락을 이어가고 있다.

그룹전

- 2022, <야외설치그룹 마감뉴스 정기전,{ }>, 그림바위예술발전소, 정선
- 2021, <수변문화실험실>, 셋강도림천안양천, 서울
- 2020, <불확실하게 확실한 네트워크>, 서울 및 경기



29번째 생각

2022, 자연설치, 종이·비닐, 가변크기

도시에 흐르는 빗물이 흘러나오는 그곳에 깨어져 없어진 빗물 흐름 턱을 바라보며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인해 변하게 되었을까? 무엇이 필요할까? 다시 채워지게 된다면 어떤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그곳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어려움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본다. 같은 성질과 같은 모양은 아닐지라도 마음의 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회색 도시의, 그 회색보다 어두운 흔적은 보이는 곳에서 또는 깊은 곳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 보이던지, 보이지 않던지 그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의 어려움은 관계 속에서 더욱 드러나게 된다. 같은 듯 다르게, 다른 듯 같게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삶을 묵묵히 살아낸 자의 흔적으로 울림을 전한다.



이홍한

이홍한은 이상적 세계로의 변화에 관심이 있으며 포착된 현상에 의한 반응, 태도로서의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그것은 고정되는 것이 아닌 변화 또는 업데이트 되며 우연에 의해 발견되는 것이기도 하다. 때문에 내용과 형식에 있어 특정하지 않는다. 크롭된 형식의 오리지널리티를 구축하는데 매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문가로서 위치하거나 상품화되는 것에 경계한다. 그 때 그 때 한 사람으로서의 유연한 작업으로 유의미한 변화의 밑그림으로 사유되기를 꿈꾼다.

개인전

2019, 〈가능선〉, 공간힘, 부산

2018, 〈비-선택 이미지에 대한 세 가지〉,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

2017, 〈감각의 자격〉, 대안공간 눈, 수원

그룹전

2022, 〈괄호〉, 화암면 일대, 정선

2019, 〈다독풍경〉, 스페이스XX, 서울

2017-2018, 〈아트스콧프로젝트 AAA〉, 언리밋스페이스, 울산, 청주, 부산

수상

2018, 소액다کم 선정, 서울문화재단

Skip Skip Skip

2022, 영상QR설치, 싱글채널 비디오, 5분 33초

주로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매체에서 사용되는 건너뛰기, 생략과 같은 의미의 'Skip'이란 낱말이 한동안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다. 그것은 아픔을 겪은 이에게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실행되어야만 또는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고 또 바라며 언제까지고 달라붙어 있었다. 이 이중성의 낱말은 도림천에서의 관찰에서 몇 가지 존재의 모습으로 드러났다.

녹색환경, 이주민, 구역으로 크롭된 안내표지판, 밀려온 흙, 소비, 재난, 소리, 춤과 같은 존재들은 우리의 향유와 안심이 담보하는 비가시적 실존이다. 나는 이와 같은 실존을 영상매체로써 흐르듯 가시화하고 동시에 관객의 자연스러운 행위로의 동원(QR코드를 통한 특정 장소에서의 개별관람)을 유도한다.



작품 영상 보기



장영훈

장영훈은 서울, 경기를 기반으로 익숙함에 당연해지는 것들과 그로 인한 문제들에 대한 작업을 한다.

개인전

2020, 〈척〉, 갤러리라이프, 서울

2017, 〈Selfie〉, 대안공간눈, 수원

2017, 〈Show〉, 오! 재미동 갤러리, 서울

그룹전

2022, 〈야외설치그룹 마감뉴스 정기전, { }〉,

그림바위에술발전소, 정선

2021, 〈Prospective〉, 갤러리인사아트, 서울

2021, 〈익숙한, 익숙하지 않은〉, 평택남부문예회관, 평택

수상

2019,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청년작가 공모전, 대상

2018, 고양호수예술축제 자유참가작, GYLAF Choice

2010, 경원미술대상전, 대상

**안무는 개**

2022, 오브제설치, 레진, 90x40x50cm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다. 그것은 행동이나 습관일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이나 사람, 반려견일 수도 있다. 사람들은 익숙함에 당연해져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기도 한다. 반려견에 대한 개인적인 익숙함으로 타인 또한 그러하리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우리 개는 안물어' 라며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로 인한 인명 피해도 일어나고 있다. 반려견을 좋아하지 않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을 주기도 한다.

작품은 진짜와 가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관객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관념에 의문을 갖도록 하며,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서의 반려견이 줄 수 있는 공포에 대해 역설적으로 표현한다.



정국택

인하대학교 미술교육(조소전공)과와 성신대학원 환경조각과 졸업

개인전

2018, <Businessman>, Art de Borah갤러리, 서울
2015, <꿈을 품다>, 롯데백화점 본점 명품관 AVENUEEL, 서울
2011, <Flying>, 갤러리로얄, 서울

그룹전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Art Cologne, 상하이 아트페어 및 국제조각비엔날레 등 다수의 기획전과 초대전

수상

2007, TOYAMURA International Sculpture Biennale (입상)
2004, 모란조각대상전(특별상)
2003, 제비울미술관 야외조각전(대상)



은빛 돌맹이

2022. 자연설치, 자연석·알루미늄호일, 가변크기

흙먼지가 날리고 비바람이 불어와 뼈속까지 아픈데, 나는 이를 악문다. 내 맘 돌 곳 찾아서 난 길을 떠난다. 내 꿈을 찾아서, 내 사랑 찾아서 나는 자유로운 새처럼 마음껏 날고 싶어. 구르고 또 굴러서 멍투성이가 되도록 세상 끝에 홀로 서 당당히 선다. 멈추지 마. 꿈꾸는 돌맹이, 날아라 돌맹이.



정상수

정상수는 동아대학교 조소과 학사와 석사를 전공하였다.

2015년 'Missing Link(잃어버린 고리)' 라는 주제를 시작으로 '생명의 기원은 무엇인가?' 에 대한 간단하고도 끝없는 물음을 던지는 작업을 해왔다.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던 자연물들과 자기만의 방식으로 교감하며 작가의 상상력으로 채운 표현들로 3회의 개인전과 40여회의 그룹전에 참여하며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개인전

2016, <되살아난 기억>, 사이아트스페이스, 서울

2015, <MISSING LINK(잃어버린 고리)-

deep_sea organism II(심해생명체)>, 팔레드서울, 서울

그룹전

2021, <문체부 공공미술 프로젝트 『서울, 25부작』>

-투명함에 관한 모든 것>, 도봉평화문화진지, 서울

2017, <진화, 우연한 변화의 시작>, 숙명여자대학교 문신미술관, 서울

2015, <제3회 국제아트비엔날레 "FRESH WINDS">, Gardur, 아이슬란드

수상

2016, 아트팸랩챌린지, 키덜트랜드 최우수상



편의를 위하여

2022, 오브제설치, 금속·도림천에서 수집한 쓰레기, 가변크기

작가는 두 개의 벤치를 제작하고 설치한다. 두 개중 하나의 벤치는 작가가 도림천에서 직접 수집한 쓰레기들을 사용하여 만들어지게 되고 과연 벤치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 관찰한다. 편의를 위해 버려진 것들을 사용하여 편의를 위한 것을 생산한다.



정혜령

낯선 곳에서 머물며 관찰하는 것을 통해 영감을 받아 작업하기를 즐기며, 공간과 재료의 물성에 관심을 갖고 주로 현장에서 수집한 재료와 전시할 장소의 공간을 이용하여 작업을 한다. 성신여자대학교와 동대학원에서 조각을 공부하였으며 야외설치에 관심을 갖고 2001년부터 설치그룹 마감뉴스, 2008년부터 바깥미술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개인전

2018, <The Trace of Memory>, (IOE초대), 산반조갤러리, 일본
2013, <버려진 것들이 내게 말을 걸었다>, 유메갤러리 초대, 일본
2011, <사라지는 마을을 위한 기념비>, 435국제예술촌, 대만

그룹전

2022, <콤마게네 비엔날레>, 카흐타 성, 아디야만, 튀르키예
2021, <사공토크: 꿈, 물, 사이, 앉아>, 아트잠실, 서울
2020, <제주 세계유산축전/불의 기억>, 거문오름 일대, 제주

자라다_이야기(가제)

2022, 자연설치, 버려지는 비닐쓰레기로 뜨개질, 가변크기 비닐만큼 편리한 것이 있을까. 담고 덮고 감고, 여기저기에 쉽게 사용하고 또 쉽게 버린다. 이 작업은 인간의 소비에 의해 쌓여가는 비닐 쓰레기와 그로 인해 자라나는 문제 의식에 관한 어두우면서도 가벼운 무게에 대한 것이다.

버려지는 비닐쓰레기를 수집하여 끈처럼 길게 다듬은 뒤 뜨개질하여 마치 무엇인가가 응축되어 흘러내리는 듯한 형태를 제작한다. 도림천의 나무에 매달린 작품을 통해 환경오염물질에 뒤덮힌 자연의 조용한 외침을 상징하고자 하였다.



조미영

홍익대학교 조소과 및 동대학원 졸업. 조각, 설치미술, 퍼포먼스를 하는 시각예술가다. 몸과 물질의 상호작용으로 생산되는 조각에 매료되어 있으며, 예술을 통해 삶의 다양한 측면의 균형을 맞추고자 한다.

개인전

2022, <어스 바디 Earth Body>, 금보성아트센터, 서울
 2021, <우리는 어느새 그녀를 다 써버렸다>, 프로젝트 스페이스, 서울
 2020, <몸의 건축/삼일천하>, 공간일리, 서울

그룹전

2017, <종이조형전>, 뮤지엄산, 원주
 2016, <흙그라운드>, 청주 시립미술관, 청주
 2014, <아파트 인생-아파트 프로젝트>, 서울 역사박물관, 서울

수상

2014, 아시아문화위원회 지원금, 뉴욕
 2013, 풀락 크라즈너 재단지원금, 뉴욕

감행된 풍경 2022

**2022, 설치, 가설재파이프-클램프-매쉬,
 약 200 × 200 × 300 cm**

가설재 비계는 건축물을 세우거나 철거하는 데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기 보다는 대상을 세우기 위해 버티는 구조물은 그 역할을 다하면 해체되어 흔적 없이 사라진다. 일시적이고 임시의 상태, 도시 곳곳에 아파트, 건축물들이 욕망처럼 자라나고 그만큼 그 욕망들을 지지하기 위한 비계구조물이 넘쳐난다. 작가는 가설재처럼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 버티고 서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대상을 위한 버티기가 아닌 스스로 서기를 감행한다.



조세진

조세진은 서울과 리스본을 기반으로 살아있음에 대한 작업을 한다. 생의 고통과 죽음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여 존재와 시간, 정신과 육체 등으로 화두를 지속하고 확장해가며 이를 회화와 영상, 설치로 표현한다. 삶을 인내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의 모습에서 영감을 얻고 그 아름다움을 작업으로 전달하고자 한다.

개인전

2018, 〈조세진 개인전〉, 종로극장, 서울

2017, 〈조세진 개인전〉, 에무갤러리, 서울

2016, 〈조세진 개인전〉, 우민 아트센터, 청주

그룹전

2022, 〈마감뉴스 정기전〉, 그림바위예술발전소, 정선

2021, 〈제주세계문화유산축제/불의 숨길〉, 한라산 거문오름, 제주

2021, 〈오르 평화 페스티벌〉, 김포한강중앙공원, 김포

수상

2022, 프렌디작가 트렌디친구 온라인 레지던시 작가 선정, 리스본/포르투갈, 울산 사이언스월드

2017, 부산국제비디오아트페스티벌 선정작(11월 어둠을 걷는 사람들), 공간 힘, 부산

2015, 아카이브 작가 선정, 소마드로잉센터, 서울



향기가 새겨진 피부

2022, 자연설치, 굴껍질·실·철사, 15m × 20 cm

뱀이 변신을 거듭해 용이 되기도 하고, 때론 실패하기도 한다는 이무기 설화는 바라는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는 천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희망이자 냉혹한 현실을 담고 있다.

굴껍질을 이어 이무기가 벗어두고 간 허물을 만들어 나무에 설치한다. 이무기가 굴을 좋아해서 허물을 벗고 간 자리에 굴향이 진동을 했다는 이야기도 곁들이고자 한다. 용이 되기 위해 열심히 몇 백년을 수련하고 있는 향긋한 청년 이무기가 우리 곁에서 오늘의 시간을 함께 살아가고 있다.

껍질은 알맹이가 살아낸 생의 증거이다. 굴껍질 이무기는 작업의 화두인 고통과 죽음, 그리고 생에 대한 고민을 즐겁고 명랑한 방식으로 보여준다. 쉽게 무르고 썩는, 잘 찢어지고 부서지는 굴껍질은 꿈, 용기, 희망, 정의같은 가치와 닮았다. 언젠가는 변하고 썩어 사라지는 것, 그러나 흙으로 돌아가 거름이 되어 땅을 비옥하게 하고 다음 알맹이를 키워내는 힘이 된다.



최용선

최용선은 파주를 기반으로 작업하는 조각가이자 설치미술가다. 자연속의 오브제와 생활속에 발견된 오브제를 이용하여 새로운 나무의 형태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개인전

2007, <제2회 개인전>, 갤러리 31, 서울

2002, <제1회 개인전>, 올갤러리, 서울

심포지움

2021, 세계유산축전 불의숨길 아트프로젝트, 제주

2010, 흑룡강성 국제 목조각 심포지움, Harbin, 중국

2008, KorkeP International Art Camp, Lazarea, 루마니아

오르다

2022, 자연설치, 목재, 2 × 1 m

버려진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나뭇가지 패턴의 유기적인 형태를 만들었다. 버려진 나뭇가지는 땅속에 스며들어 새로운 생명의 자양분이 되기도하지만 그냥 썩어서 사라지기도 한다.

그 나뭇가지가 새로운 생명이 되어 솟아 오르기를 상상하며….



최지은

최지은은 성신여대 조소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조형 작업을 한다.

수상

2002, 제 13회 미술세계대상전 특선

2002, 2002 단원 미술대전 특선

2001, 도자기 엑스포 조각공원-청년작가 야외조각 공모전 입상



꽃이 피다

2022, 설치미술, 단열재, 180 × 180 × 15 cm

꽃밭 세상에 갇혀

꽃이었던 나를 심는다

꽃을 피우는 일이

나를 피우는 일 같아서

꽃밭에 앉아 잃어버린 나를 가꾼다

-이승용 시인 <꽃이 피다 2> 중에서



홍지희

설치미술가. 식물처럼 신선한 사유가 자라나고 번식하고
돌아나게 하는 삶을 찾고 있다. 환경에 따라 식물이 적응하며
성장하는 것처럼 다양한 환경(자연 혹은 변화하는 시대)에 나
자신이 놓여 그에 맞는 작업으로 나와 작업이 같이 성장하는
창작자이고자 한다.

개인전

2018, 〈We Make a Plant〉, 대안공간 눈, 수원

2015, 〈우리는 흔들린다〉, 신도림예술공간 고리, 서울

2014, 〈그러다 잊혀지는, 불능의 정원〉, 문화아카이브 봄, 서울

그룹전

2021, 〈글로벌노마딕아트프로젝트- 자연미술워크숍〉, 공주

2021, 〈세계유산축전 불의숨길 아트프로젝트〉, 제주

2021, 〈키네틱 아트캠프〉, 그림바위마을, 정선

안녕 잠시 쉬는 중이야.

2022, 조각, 스테인리스스틸, 198 × 10 × 43 cm

나의 손이 식물의 잎과 닮았다고 생각하니 그들은 녹색의 손으로
바람에 흔들리며 '안녕' 하고 나에게 늘 인사하고 있었다. 그들은
늘 주위에 머물러주며 함께하고 있다. 식물을 흉내 내는 나의
손은 오늘 물가에 와서 잠시 손가락을 물에 담그고 쉬고 있다.
물을 흡수해서 더 자라나야지!





도림천 빛갤러리는 사업지의 경관과 조도에 대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개선사항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당초의 사업 계획은 거리공원 오거리의 하부 공간을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사업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통해 소통 역할이 증진된 ‘커뮤니티 공간’을 시민들에게 선사하자는 의도였다. 그러나 사업 추진과정 중 아래의 요소로 기획을 변경하게 되었다.

1. 빠른 유속과 매년 장마철 이후 토사와 쓰레기가 쌓이는 구간
2. 커뮤니티 공간으로의 전환 후 관리(청소, 이용안내 등)와 시민 이동편의를 위한 토대 작업이 환경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지
3.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공사, 설치에 대한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우려 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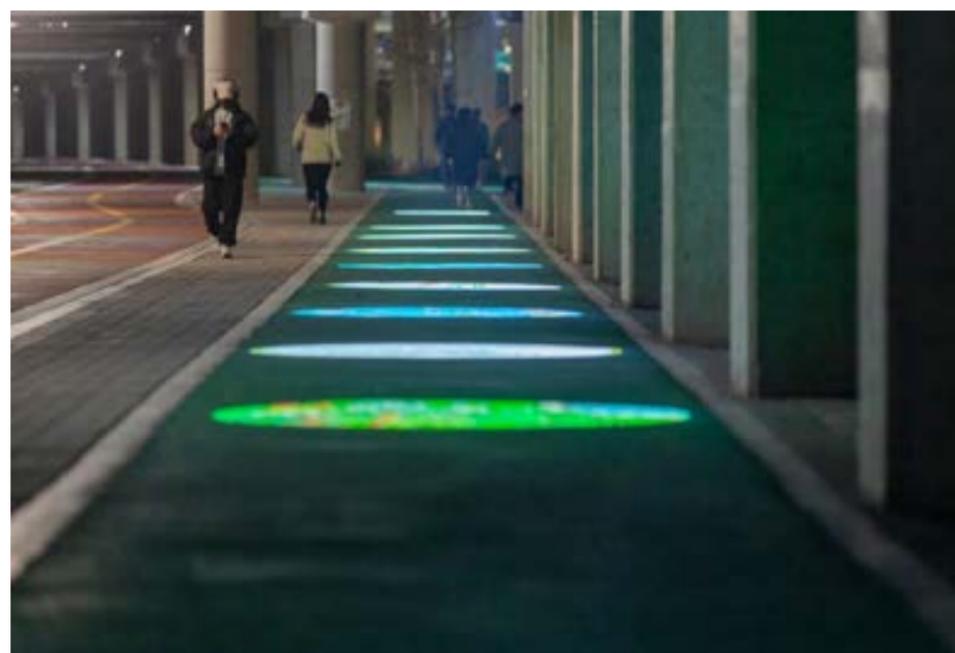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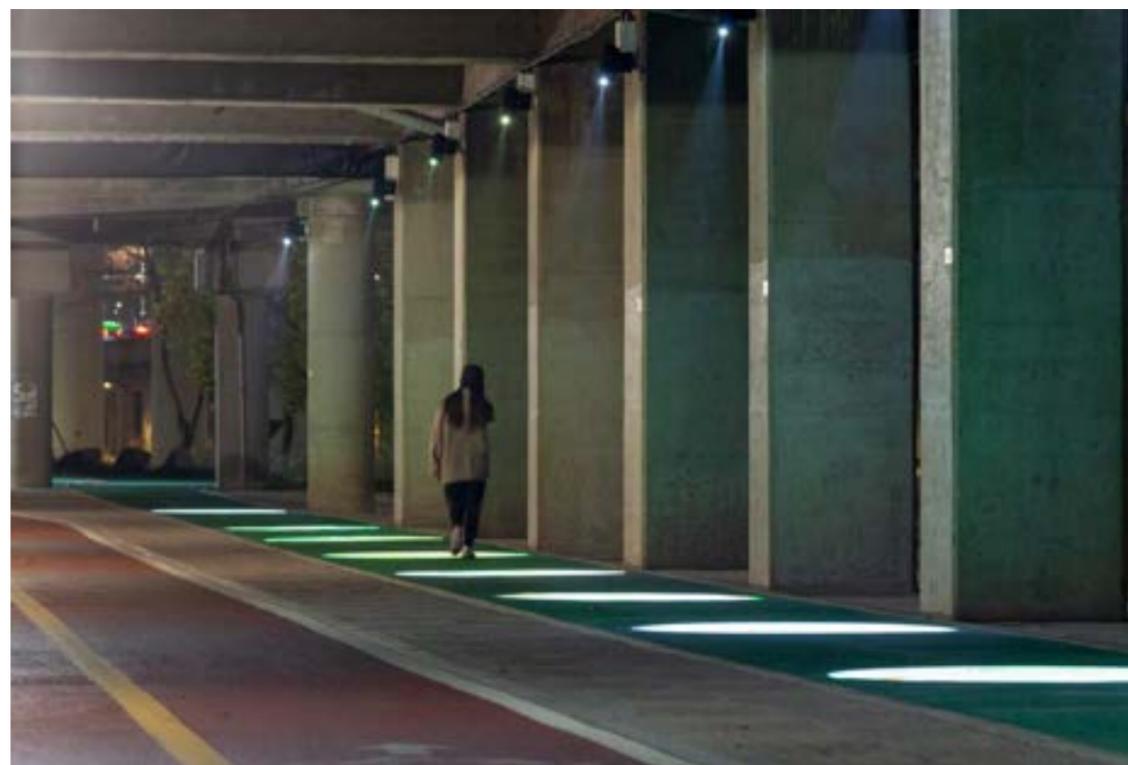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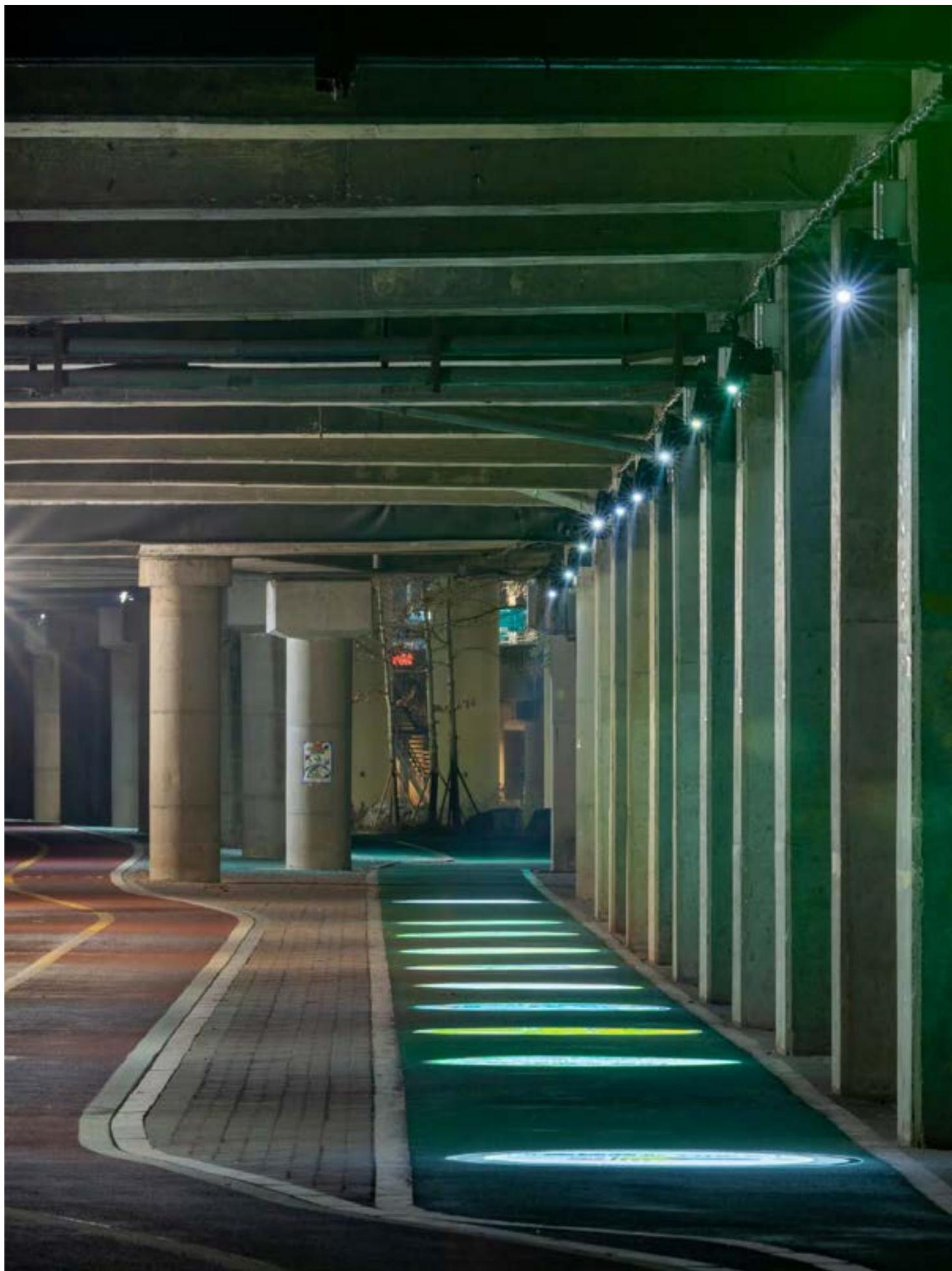
이에, 공간으로서의 전환이 아닌 예술로서의 전환 방법을 모색하던 중 주야간 모두가 어둡다는 지속적인 민원이 이슈화 되었고, 이를 예술적인 방법으로 해소하는 컨셉을 설정하였다. 미디어파사드, 빔프로젝터 설치가 어려운 상습범람구간에 비교적 가변성이 유연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조명을 설치하되, 시민의 보행동선과 시야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을 모색했다. 더불어 조명에 녹일 수 있는 공공예술 콘텐츠로 관내 작가와 어린이들의 공동 작업이 들어간 조명을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접근하였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거리공원 오거리의 교량횡단을 관할하는 서울시 남부도로소사업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했고,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를 통한 별도의 전기공사와 분전함을 설치하였다. 또한, 서울시 좋은빛심의위원회에 빛공해 요소를 포함한 콘텐츠

적합성에 대한 심의도서를 작성한 후 제안 발표를 거쳐 ‘적합’ 심의 결과를 받았다.

빛갤러리는 대림역에서 신도림역 방향으로 난 거리공원 오거리의 교량 하부에 설치되었다. 발달장애 화가 이다래 작가, 구름을 그리는 문래 활동 기반의 운주 작가의 작품으로 시작된다. 이 밖에도 영등포구 어린이 그림대회 수상작, 대동초등학교 학생, 영등포구 어린이집 아동의 그림으로 전시는 마무리 된다.

어두운 교각 하부의 공간이 빛으로 구성된 갤러리로서 전환 되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공간이 다양한 예술로 채워지는 새로운 산책로가 되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수 있길 희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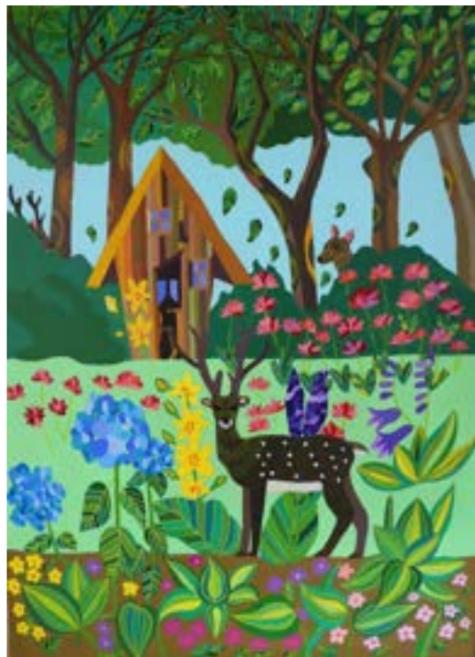
[1]



[2]



[3]



[4]



[5]

- [1] 이다래, <가을소풍>, Acrylic on canvas, 53 x 41 cm, 2021
- [2] 이다래, <공작새가 있는 숲>, Acrylic on canvas, 90.9 x 72.7 cm, 2021
- [3] 이다래, <사슴이 있는 정원>, Acrylic on canvas, 72.7 x 91 cm, 2020
- [4] 이다래, <숲속의 오두막기>, Acrylic on canvas, 90.9 x 65.2 cm, 2021
- [5] 이다래, <연못풍경>, Acrylic on canvas, 53 x 41 cm, 2022



[6]



[7]



[8]



[9]



[10]



[11]



[12]

- [6] 문주, <Everything Seems Like>, 2022, 캔버스에 아크릴, 오일파스텔, 45.5 x 45.5 cm
- [7] 문주, <SUNSET U>, 2022, 캔버스에 아크릴, 오일파스텔, 45.5 x 45.5 cm
- [8] 문주, <Sold out>, 2022, 나무패널에 아크릴, 122 x 79 cm
- [9] 문주, <Spring>, 2022, 캔버스에 아크릴, 라카, 오일파스텔, 45.5 x 45.5 cm

- 2022 영등포구 어린이 그림대회 수상작
- [10] 김세현, <공중채집>, 영문초, 저학년 부문 장려상
- [11] 이주아, <깨끗한 지구가 태베로 왔어요>, 당서초, 저학년 부문 일선
- 대동초등학교
- [12] 강현우, <신나는 여름>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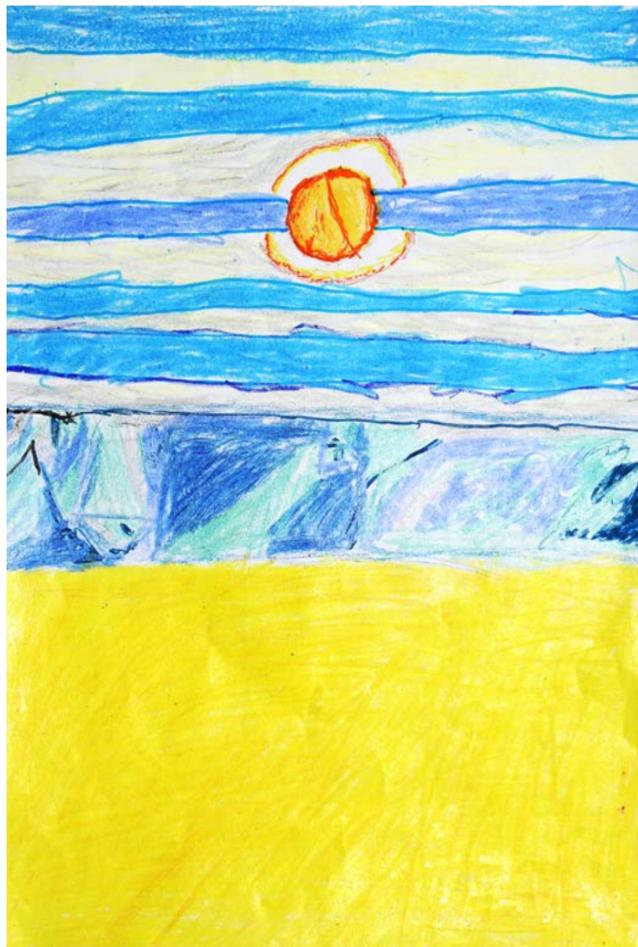
[14]



[15]

대동초등학교

- [13] 김민소, <꽃과 나>
- [14] 박민준, <숲속을 걸어요>
- [15] 박시후, <소중한 내친구>
- [16] 박지홍, <떠오르는 작은 희망>
- [17] 이준수, <친구들과 추억 만들기>
- [18] 손희주, <가을의 향연>



[16]



[17]



[18]



[19]



[20]



[21]



[22]



[23]



[24]

- [19] 신우빈, <즐거운 산책>
- [20] 예지후, <숲속 친구와 놀아요>

영등포구민회관 어린이집

- [21] 박민솔, <나비랑 훨훨>
- [22] 이의찬, <감자를 키워요>
- [23] 신해솔, <언니랑 즐거운 산책길>
- [24] 한가람, <숲의 요정들>

생태극장 & 커뮤니티 라운지



프로젝트 추진기간:
2022/04-12(2022/12 오픈, 유지)

〈도림천 생태극장〉의 사업대상지 약 1km 길이의 도림천에는 구간 양끝, 중간 총 3개의 도림천을 횡단하는 교량이 있다. 총 4km 이르는 도림천은 구간별로 하천의 폭과 환경이 다양한데, 그에 따라 교량의 기둥수도 상당하고 교량의 폭도 넓어 하부는 어두운 구간이 많다.

처음 현장 실사 시 이러한 열주(기둥)의 행렬이 기하학적인 느낌을 주었고, 여름천 유수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는 넓은 구간을 극장의 형태로 활용하고자 생태‘극장’을 기획하였다.

교량하부에는 매일 색소폰을 연주하는 시민들이 있다. 암묵적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각자 연주를 하고 때로는 합주를 하는데 교량 하부에 색소폰 소리가 울려 퍼지는 광경이 이색적으로 다가왔고, 시민들에게 무대를 제공해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풍경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극장이 무대로 활용되길 바랐다.

또한 이 구간은 다른 도림천 구간에 비해 벤치가 거의 없어 민원이 종종 발생하는 곳이기도 하다. 현장에서 시민들이 산책을 하다 천변 석재에 앉아 쉬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고, 스트리트 퍼니처 형태로 디자인 요소를 가미한 벤치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공공예술 작품으로써의 쉼터가 시민들을 서로 연결하여 소통하는 장소로 변환을 꾀하는 사업의 소기목적에 따라 ‘커뮤니티라운지’로 이름 짓고 기획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두 요소를 현장에 녹이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상습범람지로 인해 행정적으로 새로운 시설물, 심지어 표지판까지도 유수장애시설로 간주되어 관할부처의 승인이 쉽지 않았다. 우리는 이 두개를 공공디자인을 통해 하나의 유기적인 구조로 녹이는 방향으로 전환을 시도하여 사업대상지의 특성과 허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공디자인을 구현하였다.

하나의 디자인으로 준공이 완료된 생태극장커뮤니티 라운지는 중앙이 무대가 되고, 획일적인 벤치의 형태로 지정되지 않은 쉼터이다. 코로나19 이전까지 시민들이 모여 광장무를 추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던 장소가 새로운 커뮤니티적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길 기대한다.

디자인시공
에이코랩 건축사사무소



[1]



[2]

- [1] 초기 조감도
- [2] 2차 수정 설계도
- [3] 콘크리트 타설
- [4] 콘크리트 패드 폴리싱

- [51] 스톤 제작
- [61] 장식 설치
- [71] 도색
- [81] 준공



[5]



[6]



[3]



[4]



[7]



[8]

그린쉘터 도림도란



워크숍 기간:
2022/11/12, 11/19

그린쉘터 프로젝트는 사업 초기부터 기존 공공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공모사업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주제인 물, 생태계에 관한 메시지를 모두 내보일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논의를 이어왔다.

협력 기관
하이사이클
장소 협조
서울시교육청 구로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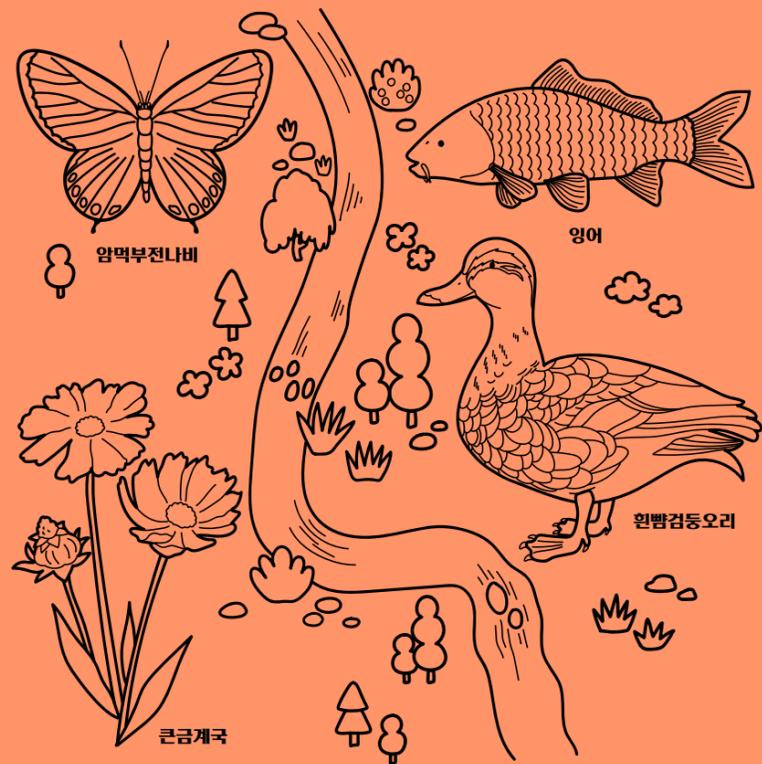
도림천 생태계는 생태적으로 큰 지역이나 특별성을 보이기보다는 시민들과의 접점이 크다는 점. 그리고 환경적 요소와 기능적 요소가 거의 비슷한 구조로 설정되어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원론적인 생태복원은 어렵다는 것이 연구사업을 통해 받은 전문가들의 자문결과였다.

장소의 특성상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공사, 설치가 우선적으로 진행될 하천의 콘크리트 공사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를 바꾸는 생태복원이 아니라면 무의미했고, 조류에 초점을 맞추더라도, 생태계의 자생력을 해칠 수 있다는 주요한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그린쉘터는 시민들의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의식의 전환, 현장에서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는 목표점을 두고 도림도란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앞서 진행된 프로젝트 도림천생태도감과 연결성을 가지고,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태교육, 재활용 워크숍으로 구성하였다. 도림천의 식물, 동물, 물살이를 주제로 하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들의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족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에코백 만들기를 포함시켰다.

11월 총 4회의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모두가 자신만의 에코백을 들고 도림천을 즐김하며, 산책하러 나가는 발걸음은 또다른 시작으로 마무리된다.



심포지움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심포지움
발제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행사기간: 2022/12/22

공공예술 프로젝트

도림천 생태극장

심포지움

수변, 친수편의시설,
그리고 공공예술 사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공예술사업에 선정되어 21'~22' 2개년 사업으로 진행된 영등포문화재단의 공공예술 프로젝트 <도림천 생태극장>을 마무리하고, 사업대상지마다 다양한 특성과 변수를 지닌 공공예술 사업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일시 2022.12.22.(목) 오후 2시

장소 숲속센터 4층 숲속홀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133길 15

참여방법 인스타그램 @dorim100_ydp 공지사항
또는 QR로 사전신청
*참가비 무료



신청기간 ~ 12.20.(화)

대상 문화예술/공공예술/공공미술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관련분야 종사자

14:00-14:15 10'	개회 개회 및 사업소개	최무수 도림천 생태극장 책임감독
14:15-14:30 15'	기획발표 물, 배, 바람 - 변화하는 자연과 공공예술	김성호 기획, AFA17 책임감독
14:30-14:45 15'	발제1 예술과 환경 사이에 존재하는 틈 사례발표	조외학 도림천 다닝길 프로젝트 전시 참여작가
14:45-15:00 15'	발제2 존재유연 프로젝트 사례발표	현병문 디폴딩 대표이사
15:00-15:15 15'	발제3 We are here Venice 의 지역사회내의 역할과 사례발표 프로젝트 소개 *공리인	한소영 올라남 디렉터
15:15-15:20 5'	중식	
15:20-15:30 10'	지침토론 재안을 중심으로 ✓ 수변을 거점으로 하는 공공예술의 주요 현안 ✓ 공공예술 프로젝트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과 지원방안	좌장, 발제자
15:30-15:40 10'	종합토론 거리토포 및 참여유망	참여자 전원
15:40-15:45	폐회 및 종료	

2022년 9-10월 약 2개월간 33작품이 <도림천 다님길 프로젝트>, <도림천 나들이 part.2> 전시를 통해 도림천 현장에 설치되었다. 거대한 야외 전시장이 된 도림천을 걷는 시민들은 작품을 보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 아이와 의자를 펴고 작품을 관람하기도 했다.

조사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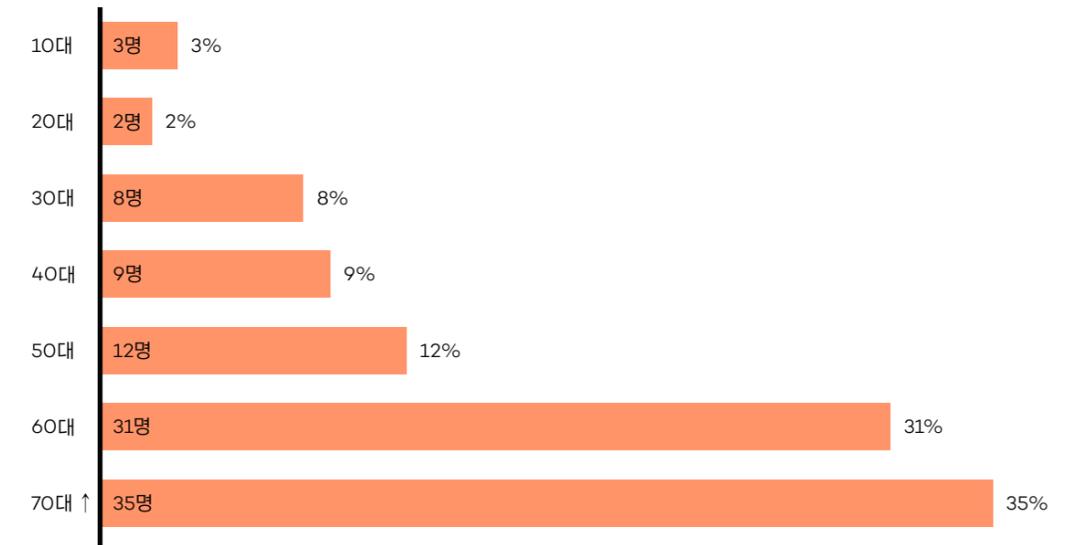
2022/10/20-10/21

조사 대상

도림천 보행시민 약 100명

시민만족도 조사

1.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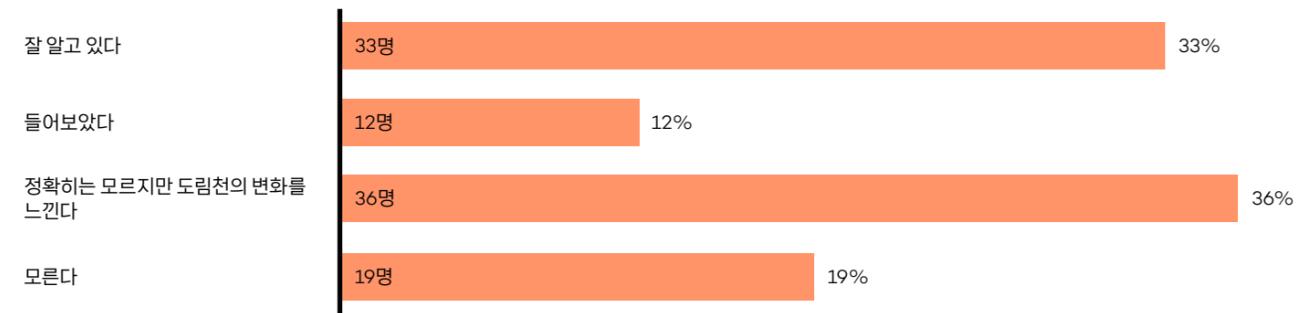
2. 도림천 방문주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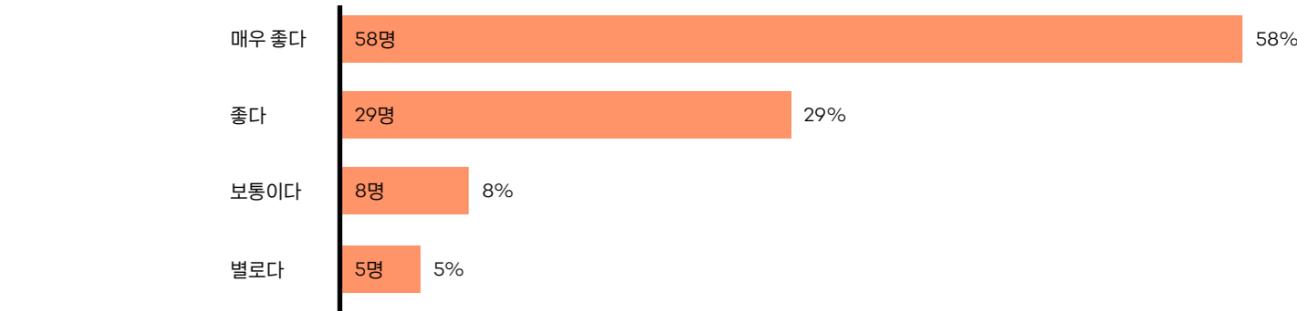
3. 도림천을 방문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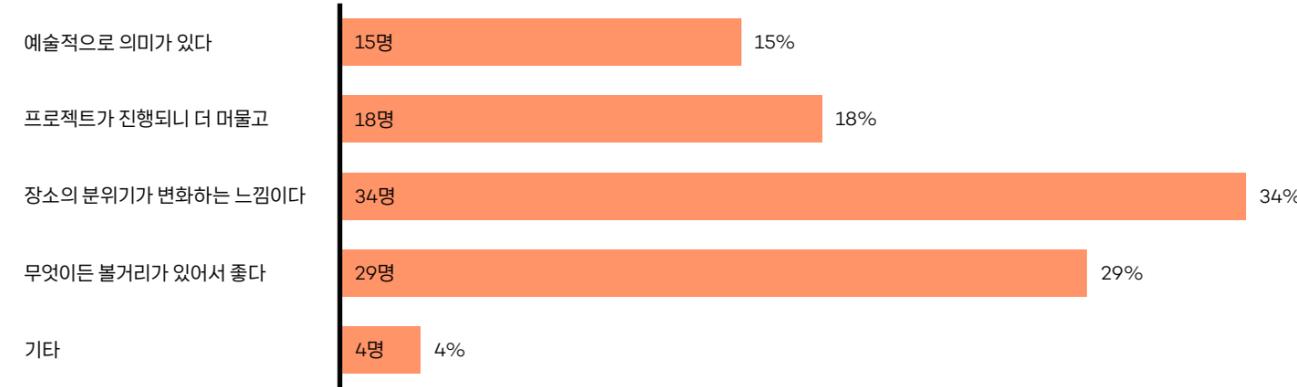
4. 9월-10월 두 달 간 도림천에서 진행되는 야외전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5. 도림천에서 이러한 전시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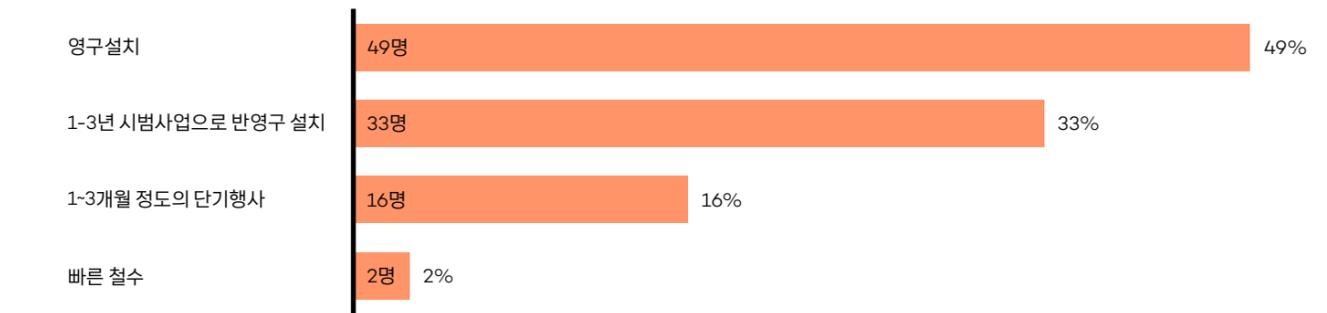
5-1. (5번 문항 매우 좋다, 좋다 응답자에 한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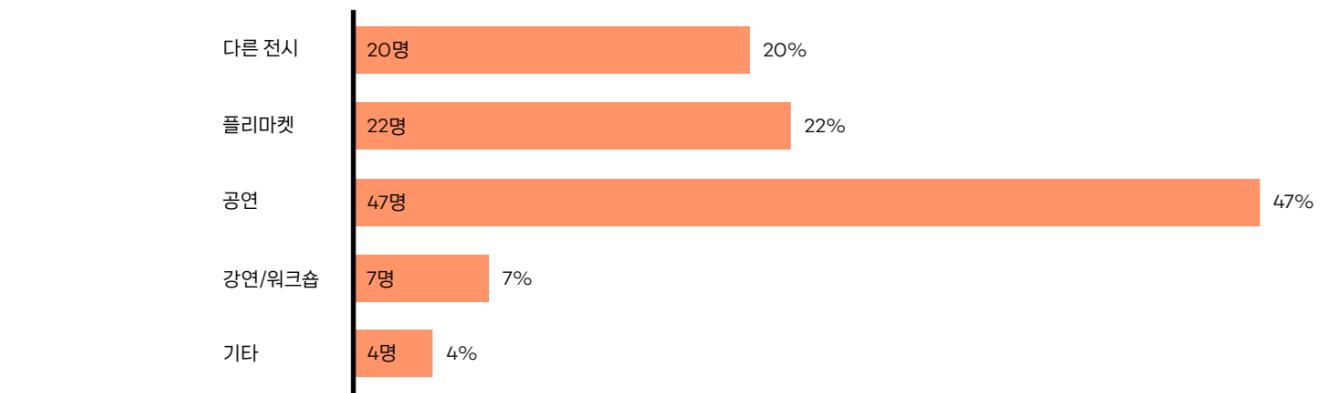
6. 본 사업을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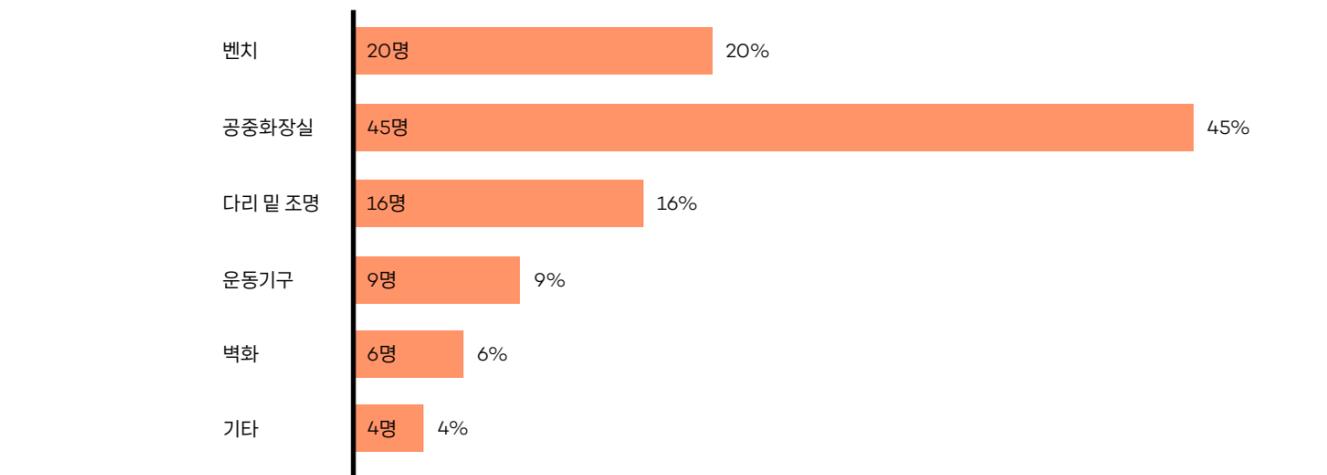
7. 본 사업에서는 전시 외에도 도림천에 공공디자인 벤치, 예술작품 조명 설치 등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설물이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8. 위에 언급된 프로젝트 외에 도림천에 문화예술 프로젝트로 희망하는 프로젝트가 있나요?



9. 도림천에서 우선으로 생겼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영등포 도시의 이름에 들어간 물가를 뜻하는 '포浦'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흐르던 강줄기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다. 강줄기의 흐름과 지역성을 표현한 레터링 디자인.

워드마크

도림천 생태극장

워드마크 응용



색상 체계

도림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연적인 색상을 직관적으로 선택하고, 대담하게 표현하는 색을 더한 색상 체계이다.



일러스트레이션



아카이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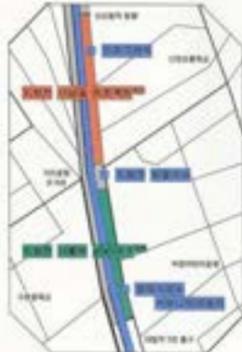
도림천 생태극장 아이덴티티 디자인 기록

공공예술 프로젝트

도림천 생태극장

www.ydpcf.or.kr

21'-2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공예술지원사업 선정	대림역 5번 출구에서 대림동 646-1 (신도림역 방향)까지 도림천 1km 구간	2022. 9. 8. - 12. 31.	영등포문화재단
-------------------------------	--	-----------------------	---------



도림천 개요

도림천은 1970년대 도시개발로 인해 훼손된 자연하천을 복원하여 조성된 하천입니다. 도림천은 대림역 5번 출구에서 대림동 646-1 (신도림역 방향)까지 도림천 1km 구간을 흐릅니다. 이 구간은 도림천 생태극장의 주요 구간입니다. 도림천 생태극장은 영등포문화재단이 주관하는 공공예술 프로젝트입니다. 도림천 생태극장은 도림천을 따라 걷다보면 영등포의 작가와 어린이들의 작품이 비춰지는 조망산책로와 더불어 기동 사이에 전시된 다양한 작품들과 공공디자인 쉼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림천에 사는 동식물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담은 생태도감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가 매일 거니는 산책로에서 문화예술을 가까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등포문화재단 소개

영등포문화재단은 영등포구 문화의 중심을 이루고, 지역주민의 문화향유를 증진시키고,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공익법인입니다. 영등포문화재단은 영등포구 문화의 중심을 이루고, 지역주민의 문화향유를 증진시키고,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공익법인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의 전환 '도림천 생태극장'

도림천 생태극장은 영등포문화재단이 주관하는 공공예술 프로젝트입니다. 도림천 생태극장은 도림천을 따라 걷다보면 영등포의 작가와 어린이들의 작품이 비춰지는 조망산책로와 더불어 기동 사이에 전시된 다양한 작품들과 공공디자인 쉼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림천에 사는 동식물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담은 생태도감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가 매일 거니는 산책로에서 문화예술을 가까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림천 생태도감

도림천 생태도감은 도림천에 사는 동식물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담은 생태도감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가 매일 거니는 산책로에서 문화예술을 가까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공예술 公共藝術

도림천 생태극장

2022.09-12

道林川生态劇場

도림천 나들이 part 2 기획 2022.9.22-10.26.

전시 작품 둘러보기

도림천 다님길 프로젝트 공모 2022.9.17-10.23.

전시 작품 둘러보기

도림천 생태도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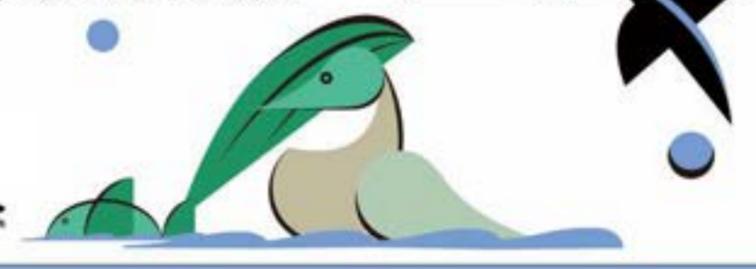
도림천에 사는 동식물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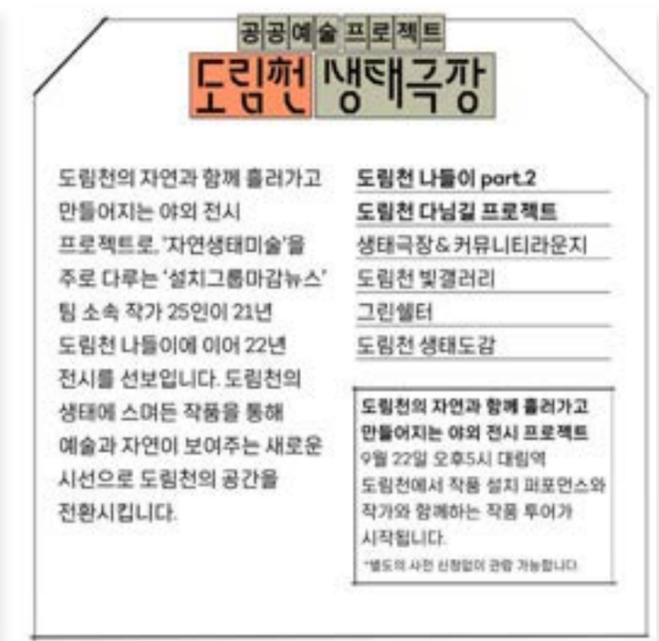
도림천 생태극장은 영등포문화재단이 선보이는 공공예술 프로젝트입니다. 하천을 따라 걷다보면 영등포의 작가와 어린이들의 작품이 비춰지는 조망산책로와 더불어 기동 사이에 전시된 다양한 작품들과 공공디자인 쉼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림천에 사는 동식물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담은 생태도감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가 매일 거니는 산책로에서 문화예술을 가까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 <도림천 생태극장>의 21-22년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dorim300.or.kr



공공예술 프로젝트

도림천 생태극장

소개 프로젝트 커뮤니티 지도 보기

뉴스레터 개인정보보조

도림천 생태극장 소개

도림천 소개

영등포는 대방천, 도림천, 안방천, 한강, 보림이 둘러싼 수변도시이고, 어느 곳이든 물줄기가 지나가는 길목을 만나 생활하는 지역이다. 도시의 이름에 들어간 물가를 풍치는 도림역 역시 아주 오랜 옛날부터 흐르던 강물가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물과 물이 좋아 맑아 담을 커두던 특성이 있었고, 활약할까 소심 '모양'을 아이들에게서 나타난 물줄기를 하며, 아이를 커두던 물새의 개마물이나 그 시절 커두던의 거점으로 건강한 마을공동체의 중심이 되었던 도림천은 도로와 아파트, 철도로 가로막힌 육로 아래로 간헐적으로 남아있다.

시작

영등포문화재단에서는 도림천을 포함한 안방천, 한강, 보림의 문화적 활동을 위한 시민참여단으로 영등포수변정식대의 수변살림단을 운영하며, 수변을 기반으로 하여 주민과 예술가들의 자율적 문화활동을 만들어가고 있다. 달신 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도심지아래의 도림천변의 자연성, 지역성, 예술성을 확보하여 도시인들을 초대하여 연결하여 지금과 그날진 장소에서 확장하고 연결된 장소로의 변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서의 존재를 위해 계획이 시작되었다.

도림천의 물과 토, 나무, 곤충, 새 등 생태의 이동을 돕고, 수변을 따라 길게 놓이던 디오의 가동, 지하 동 사람의 이동 그리고 생태계의 복원, 대방천의 주민 등 시민들이 만나 서로의 이동을 돕고, 만날 수 있는 장소이자 영등포 구조물의 예술적 개입과 크레아티브, 시민들의 이야기로 채워진 인스타그램과 수변갤러리, 생태극장의 설치로 통해 도림천변의 현상이 이어지자는 목표를 두고 2021년 첫 발걸음을 하였다.

시작

뉴스레터 개인정보보조

도림천 생태극장 소개

영등포는 대방천, 도림천, 안방천, 한강, 보림이 둘러싼 수변도시이고, 어느 곳이든 물줄기가 지나가는 길목을 만나 생활하는 지역이다. 도시의 이름에 들어간 물가를 풍치는 도림역 역시 아주 오랜 옛날부터 흐르던 강물가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물과 물이 좋아 맑아 담을 커두던 특성이 있었고, 활약할까 소심 '모양'을 아이들에게서 나타난 물줄기를 하며, 아이를 커두던 물새의 개마물이나 그 시절 커두던의 거점으로 건강한 마을공동체의 중심이 되었던 도림천은 도로와 아파트, 철도로 가로막힌 육로 아래로 간헐적으로 남아있다.

지도 보기

뉴스레터 개인정보보조

도림천 생태극장 소개

영등포는 대방천, 도림천, 안방천, 한강, 보림이 둘러싼 수변도시이고, 어느 곳이든 물줄기가 지나가는 길목을 만나 생활하는 지역이다. 도시의 이름에 들어간 물가를 풍치는 도림역 역시 아주 오랜 옛날부터 흐르던 강물가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물과 물이 좋아 맑아 담을 커두던 특성이 있었고, 활약할까 소심 '모양'을 아이들에게서 나타난 물줄기를 하며, 아이를 커두던 물새의 개마물이나 그 시절 커두던의 거점으로 건강한 마을공동체의 중심이 되었던 도림천은 도로와 아파트, 철도로 가로막힌 육로 아래로 간헐적으로 남아있다.

뉴스레터 개인정보보조

도림천 생태극장 프로젝트

도림천빛갤러리	생태극장
도림천 다님길 프로젝트	도림천 나들이 part2 기획
인포그래픽	도림도란
생태도감	심포지엄
홍보디자인	도림천나들이 아카이빙
	생태, 문화적 조사연구

뉴스레터 개인정보보조

도림천 생태극장 도림천 다님길 프로젝트

달신과 공간을 새로운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수변갤러리의 공모 프로젝트는 공모를 통해 도림천의 이야기, 지역성을 담은 작품을 선정하였다.

수변과 마을을 가로막고 있는 현재의 도로 허브 공간을 탈바꿈하여, 도림천을 산책하며 만날 수 있는 갤러리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며, 인공적인 계단, 조망이 아닌 예술적 개입과 크레아티브를 통해 도림천을 재구성-유지보수-변환하고자 한다.

공모기간 중 40명(팀)이 신청하였으며, 1차 서류심사, 2차 인터뷰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8팀이 선정되었다. 실제의 설치가능성, 재료의 반영가능, 전체적인 장소적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 조각, 미디어아트를 다양한 작품으로 구성하였다.

신청 후 워크숍과 여러차례의 대담을 통해 전시로서의 하나의 주제를 관통하고 시민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대외전시로서 2022년 7월까지의 폭우로 인한 범람으로 특히 안전에 유의하여 설치된 전시는 9월 중순-10월 중순까지 도림천 일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작품목록

김유리, <무한한 흐름 Infinite Flow>	김정도, <모두를 위한 방울>
정경우, <시티크레처 City Creature>	조아역, <화-이-이-이>
주혜원, <물고기>	장어현, <No.1 무빙갤러리 - 영매가 말했다>

뉴스레터 개인정보보조

도림천 생태극장 인포그래픽

현상 사진

뉴스레터 개인정보보조

도림천 생태극장 도림천빛갤러리

교보호텔 설치 사진

뉴스레터 개인정보보조

도림천 생태극장 도림천 나들이 part2 기획

자연과 함께 생선, 소망되는 자연마을 갤러리 프로젝트로서, 도림천변 고가 아래 하천과 문턱공간에 자연재료, 친환경 또는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작품들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현상의 반영, 도시개발, 오수 정화로 변화한 도림천 공간을 다시 순환의 과정으로 포용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설치공간에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한다.

설치공간에 대한 노는 1992년 겨울, 미술대학의 조소과 학생들로 구성된 '하루가 끝나는 시각' 그룹의 주요노를 뒤집는 대강노스처럼, 소수인 및 청년 등 시대의 중요한 한과 진행형의 작업을 위한 '하루가 끝나는 자유롭고 새로운 장소'를 찾아다녔다. 지난 1회에 걸쳐 자연환경이 살아있는 장소에 찾아 다양한 장소에 참여하여 작업활동을 펼치며, 주변의 재료를 재조합하거나 다양한 재료를 혼합하여 설치함으로써 자연에 반응하여 소통하였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작가들이 각자의 자연, 지역주민과 소통함으로써 예술적 감성을 함께 나누어왔다.

21년 <도림천 생태극장>의 법안 전시기획에 설치해로먼스 전시를 이어 이번 기획으로 약 1년 간 도림천에 작품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9월 22일 오후 5시 오프닝 - 작가와 함께하는 작품 투어(도슨트)를 시작으로 10월 26일까지 만날 수 있으며, 시공이 종료된 자연과 시민들을 만나며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작가&작품목록

김성미 <작고 소중한 것들에 대한 거북>	김순임 <The Seat, 도림천>
김수진, <리플렉션 Reflection>	김인수, <조물한 힘>

뉴스레터 개인정보보조

도림천 생태극장 도림천빛갤러리

도림천빛갤러리는 사업지에 대한 시민들의 필요성과 고민을 통해 시작되었다. 달신 사업계획에서 다양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거리공간 오거리 허브의 공간을 좀 더 현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활용성을 증진시켜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전환을 모색하였으나, 추진과정 중 아래의 오거리 거리의 변경이 있었다.

1. 빠른 유속과 해당 공간에 여유 동사여 쓰러져가 앉는 구간
2. 커뮤니티 공간으로 전환 이후 관리형소, 이용안내 등 시민 이용편의를 위한 등대 작업이 환경적으로 적합함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의 인지
3.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공사, 설치에 대한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우려 의견

하여 공간으로서의 전환이 아닌 예술로서의 전환의 방향을 모색하는 등 시민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인 조영을 활용한 시공 방향을 결정하였다. 설치 거리의 길 대체할 수 있는 로고타입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이동 동선에 방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상부에 고정하는 방법으로, 노출되는 이야기는 문에 활동거점의 작가, 인근 초등학교의 유치원 아동의 작품 등으로 구성되었다.

달신에 따라 고가 아래의 공간을 앞으로 이루어진 갤러리로서의 전환을 통해 시민들의 공간에 다양한 예술로 채워지는 것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작품목록

한가람, <술의 오형들>	이이현, <잡자를 커뮤>
신재호, <인나방 물거름 선택업>	박민수, <LINE방 물방>

뉴스레터 개인정보보조

도림천 생태극장 도림천 다님길 프로젝트

현상 사진

뉴스레터 개인정보보조

도림천 생태극장 생태극장

조각시연

뉴스레터 개인정보보조

도림천 생태극장 도림천 나들이 part2 기획

현상 사진

뉴스레터 개인정보보조

도림천 생태극장 생태극장

조각시연

뉴스레터 개인정보보조

연구보고서·생태도감 자문

최영식 (서울환경연합 이사장)

이한솔 (커넥터스랩 대표)

도림천 생태도감

해방해방

인포그래픽 작업참여**시민워크숍**

강수경, 강현진, 고안수, 김보배,

김신숙, 김은정, 김재숙, 김정현,

김태일, 송호철, 이록현, 이은정,

전경진

도림천 나들이 part. 1**참여작가**

김순임, 김정도, 김철민, 백진현,

송현호, 안경하, 오수연, 오혜린,

이말용, 이종균, 이종은, 이홍한,

정상수, 최용선, 최지은, 홍지희

도림천 다님길 프로젝트**참여작가**

김유리아, 김정도, 정경우,

조와팍 (박경진, 조경재),

주혜령, 진이칸, 최진저,

히든캠프 (엄아롱, 우성철)

공모 심사위원

김성호(APAP7 예술감독)

민성홍(작가)

설치지원 및 현장자문

국제평화상사

도림천 나들이 part. 2**참여작가**

김성미, 김수진, 김순임, 김인수,

김정도, 김철민, 배숙녀, 송현호,

안경하, 오혜린, 이말용, 이명섭,

이명훈, 이종균, 이종은, 이홍한,

장영훈, 정국택, 정상수, 정혜령,

조미영, 조세진, 최용선, 최지은,

홍지희

사진촬영

정진우

영상촬영

이야기

생태극장 커뮤니티라운지**디자인·시공**

에이코랩건축사사무소

도림천빛갤러리**참여작가**

이다래, 운주

참여어린이

강현우, 김민소, 김세현,

박민솔, 박민준, 박시후, 박지홍,

이의찬, 이주아, 이준수, 손희주,

신우빈, 신해솔, 예지후, 한가람

조명설치

(주) 빛고은인터내셔널

서울시 좋은빛 심의 지원

디오닉조명디자인스튜디오

심포지움

김성호 (APAP7 예술감독),

조와팍 (박경진, 조경재/작가)

한소영 (We are here in the

Venice 플래닝 디렉터)

현병은 (디올림 대표이사)

도림도란**협력**

하이사이클

워크숍 진행

손유진

장소 제공

서울특별시교육청 구로도서관

아카이빙 사진촬영

송호철

아카이빙 영상촬영

이현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부 황진수, 이성진,

김세현

행정 협조

영등포구청 안전교통국

치수과 하천관리팀, 기전팀,

기획재정국 행정재산관리팀

가로경관과 광고물 디자인팀

구로구청 치수과

서울시 남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서울시 강서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